

석사학위논문

현존 및 잠재적 위협에 대비한
한국군 구조 발전방향

-한국군 특수작전부대 부대구조 발전을 중심으로-

2013년

한성대학교 경영대학원

경 영 학 과

국방경영전공

김 기 덕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김선호

현존 및 잠재적 위협에 대비한 한국군 구조 발전방향

-한국군 특수작전부대 부대구조 발전을 중심으로-

Study on the Way to Go for the ROK Military Structures in
Response to Current and Potential Threats

-In Focus of ROK Special Operation Forces'
Organization Structure-

2013년 6월 일

한성대학교 경영대학원

경 영 학 과

국방경영전공

김 기 덕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김선호

현존 및 잠재적 위협에 대비한 한국군 구조 발전방향

-한국군 특수작전부대 부대구조 발전을 중심으로-

Study on the Way to Go for the ROK Military Structures in
Response to Current and Potential Threats

-In Focus of ROK Special Operation Forces'
Organization Structure-

위 논문을 경영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3년 6월 일

한성대학교 경영대학원

경 영 학 과

국방경영전공

김 기 덕

김기덕의 경영학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3년 6월 일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국 문 초 록

현존 및 잠재적 위협에 대비한 한국군 구조 발전방향

-한국군 특수작전부대 부대구조 발전을 중심으로-

한성대학교 경영대학원
경 영 학 과
국방경영전공
김 기 덕

오늘날 우리군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 뿐만 아니라 국제테러와 같은 초국가적이고 다양한 국내·외 위협에 직면해 있다. 첨단 정보·과학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에 따라 미래전의 양상도 급속하게 변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같은 급변하는 전환기적 안보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미래전에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군은 현재 국방개혁('12~'30)을 추진하고 있으며, 21세기 전략환경 변화는 우리 군에게 북한의 현존 위협과 급변하는 안보정세 변화에 신속하고 능동적인 대응과 더불어 다양한 임무수행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전환기적 안보상황에서 특수작전부대의 역할은 그 어느 때 보다 증대될 것이다. 특수작전부대는 국내·외로 확대된 임무 영역에서 신속성, 정확성, 은밀성, 융통성의 특성을 토대로 연합·합동 전장을 주도함으로써 인명 피해와 물리적 파괴를 최소화하는 가운데 조기에 전승을 달성하고 다양한 안보위협에 신속대응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문서에서는 현존 위협과 잠재적 위협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신속대응부대로써의 육·해·공군 특수작전부대의 발전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문은 총 6개의 장으로 구성하였다.

1장의 서론에서는 문제의 제기 및 연구의 목적을 기술함으로써 아프간전에서의 특수작전부대의 활약과 안보상황에 따른 현존 위협과 잠재적 위협, 그리고 비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현 특수작전부대의 구조가 적절한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리고 연구의 방법 및 범위를 제시하였는데, 특수작전의 특성상 비문성 내용이 많고 공개된 자료가 제한되어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 논자(論者)의 의견을 수록했음을 밝혀 두었다.

2장에서는 특수작전의 이론적 고찰인 특수작전의 정의, 특수작전의 형태, 특수작전 수행절차 등을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 재정리함으로써 특수작전부대가 수행하는 임무의 특성을 인식할 수 있는 시도를 하였다. 또한 아프간전 등 최근 전쟁시 특수작전 사례를 공개된 각종 자료를 토대로 요약하였는데, 이는 전략적 차원에서의 특수작전부대의 단독작전과 작전적 차원에서의 육·해·공군 중점작전의 지원 등을 식별함으로써 전쟁 전·중·후의 특수작전부대의 중요성과 향후 한국군 특수작전부대가 국지적인 분쟁발생 시 “어떻게 운용되어야 한다.”와 현재의 문제점을 개략적으로 인식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3장에서는 한국 특수작전부대의 현실태와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육·해·공군 등 각 군별로 보유하고 있는 특수작전부대는 평시에는 자군의 통제 하에 운용되다가 유사시 각 군별로 보유하고 있는 일부 특수작전 전력을 육군 특수전사령부에 작전통제하여 전면전 상황에 대처하게 되는데, 이러한 전·평시 이원화된 지휘구조는 합동성 차원에서 전투준비시간의 부족과 군별 의사소통 제한 등으로 원활한 작전수행이 제한되는 문제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또한 육군의 특수작전부대의 경우,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상 주변 4강(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과 상대적인 군사력 비교시 군사강국이 되기에는 다소 어려운 면이 있어 신속대응부대로써의 비대칭 전력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획일적인 특수작전부대의 편성으로 인하여 그 역할을 완수하기에는 매우 미흡한 실정임을 알 수 있었다.

4장에서는 한국의 ‘2012년 국방백서’를 근간으로 안보환경과 미래전 양상을 제시하였다. 세계 안보환경은 국제사회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 간 전략적 연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국의 국익을 극대화하면서 사안

별로는 견제를 하는 경쟁과 협력이 병존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테러 등 비군사적 위협이 증가하는 추세이고 냉전 종식 이후에도 지역적 불안정성에 따른 국가 간의 무력분쟁은 끊이지 않고 민족과 자원 및 종교에 기인하는 내전도 계속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동북아 지역은 미국·일본·중국·러시아 등 세계 주요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교차하고 있는 지역으로 미국이 절대우위의 군사력을 바탕으로 동북아 질서를 주도하는 가운데 중국의 영향력이 점점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전통적 갈등·대립 구도와 협력 구도가 공존하는 등 불확실성이 증가되고 있고, 역내 강대국들은 역동적인 안보관계 속에서 주도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도서와 해양 공간을 경제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잠재적인 분쟁요인도 대두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은 2012년 말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2013년 2월 3차 핵실험을 통해 김정은 정권의 끝없는 한반도 위기조성 책동이 지속되고 있다. 북한은 한반도 안보구조의 근간이라 할 정전협정과 한반도비핵화 원칙, 남북기본합의서의 폐기를 선언했으며, 핵 선제공격과 전쟁불사를 공언하고 있다. 최근 박근혜 정부가 긴장완화를 위해 고육지책(苦肉之策)으로 꺼내든 4. 11 대화 제의도 “교활한 술책”, “대결자세를 버리라”는 등의 선동 용어를 구사하며 정면 거부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태도는 ‘선군정치’의 기치 아래 “핵무력을 중심으로 한 방위력 건설” 노선의 확정과 이를 기반으로 한 대미 협상의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 또한 2장의 최근 특수작전 사례와 3장의 한국 특수작전부대의 현실태와 문제점을 토대로 한국군 특수작전 부대에 요구되는 능력을 제시하였다. “미 통합특수작전사령부(US SOCOM)”의 창설배경과 세계 주요국의 특수작전 부대의 현황 분석을 통해 특수작전부대가 신속대응부대로 재편성 및 확대 하는 등 미래전에 대비하기 위한 부대구조 개편을 추진하고 있음을 식별할 수 있었으며, 미래 신속대응부대로써 한국군 특수작전부대에 요구되는 능력도 병행하여 제시하였다.

5장에서는 4장의 미래전 양상과 한국군 특수작전부대에 요구되는 능력을 기초로 합동특수작전사령부 창설과 육·해·공군 특수작전부대 지휘 / 부대구조, 전력구조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합동특수작전사령부를 창설은 미래전을 준비하기 위한 미국, 일본, 중국, 영국, 캐나다 등을 비롯한 세계적인 추세이며,

전.평시 원활한 합동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부대구조로 판단하였고 합동특수작전사령부의 원활한 임무수행을 위하여 평시부터 지휘체계를 단일화 하고, 예하부대는 육군특수작전사령부, 해군특수작전전단, 공군특수작전비행단, 대테러특수임무단, 합동특수작전학교, 합동특수작전지원단 등으로 편성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1958년 창설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 육군 특수전사령부도 특수작전여단, 특수임무여단, 국제평화지원여단, 특수작전항공단, 심리작전단 등으로 개편되어 다양한 임무수행 능력을 구비해야 하며, 전력구조 또한 부여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의 첨단화된 무기·장비·물자 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6장에서는 전체적인 요약과 더불어 특수작전부대의 중요성을 다시금 강조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문에서 제기한 한국 특수작전부대 부대구조 발전방향은 국지도발시 신속한 대응능력, 북한의 핵무기 사용억제를 포함한 전면전의 억제능력 구비와 미래 잠재적 위협과 비군사적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한국군 구조 발전에 있어 가장 효율적인 부대구조 개편의 한 방법이라고 판단된다.

【주요어】 국방개혁('12~'30), 신속대응부대, 한국 특수작전부대, 합동특수작전사령부.

목 차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목적	1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제 2 장 이론적 배경	4
제 1 절 특수작전의 일반적 개념	4
제 2 절 아프간 전쟁간 특수작전 사례	22
제 3 장 한국 특수작전부대 현실태 및 문제점	32
제 1 절 육·해·공군 특수작전부대 현실태	32
제 2 절 육·해·공군 특수작전부대 문제점	34
제 4 장 미래전 양상과 한국군 특수작전부대에 요구되는 능력	38
제 1 절 안보정세와 위협분석	38
제 2 절 미래전 양상	45
제 3 절 특수작전부대에 요구되는 능력	51
1. 미 통합특수작전사령부의 창설 배경	52
2. 세계 특수작전 부대 현황과 주변국의 현대화 추진	56
3. 한국군 특수작전부대에 요구되는 능력	59

제 5 장	한국 특수작전부대 발전방향	63
제 1 절	합동특수작전사령부 창설의 필요성	63
제 2 절	지휘 / 부대구조 발전방향	65
제 3 절	전력구조 발전방향	72
제 6 장	결 론	75
【참고문헌】	78
ABSTRACT	79

【 표 목 차 】

[표 2-1] 미 통합특수작전사령관 의회증언 내용('02. 3월)	26
[표 3-1] Cohen-Nunn 법안內 특수작전부대 관련 주요내용	55

【 그림 목 차 】

〈그림 2-1〉	특수작전 핵심활동	9
〈그림 3-1〉	한반도 주변 4개국 군사력 현황	42
〈그림 3-2〉	전쟁수행개념의 변화	47
〈그림 3-3〉	이란 인질구출작전 당시 사진자료	52
〈그림 3-4〉	C-141항공기에 탑승하는 델타포스 / RH-53D	53
〈그림 3-5〉	RH-53D헬기와 EC-130급유기 충돌잔해	53
〈그림 5-1〉	합동특수작전사령부(가칭)	64
〈그림 5-2〉	합동특수작전사령부 편성(안)	66
〈그림 5-3〉	합동특수작전사령부 참모부 편성(안)	67
〈그림 5-4〉	육군특수작전사령부 편성(안)	67
〈그림 5-5〉	해군특수작전전단 편성(안)	69
〈그림 5-6〉	공군특수작전비행단 편성(안)	70
〈그림 5-7〉	대테러특수임무단 편성(안)	71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한국의 특수작전부대는 각 군별로 보유하고 있는데, 육군 특수전사령부는 1958년 4월 1일에 현 특전부대의 모체인 제 1전투단이 창설되어 현재의 특수전사령부로 발전하였으며, 해군 특수전부대는 1954년 6월 23일 상륙전대에 해군 해안대를 창설하여 현재의 특수전전단으로 발전하였다. 또한 공군 특수작전 부대인 제 15특수임무비행단은 공수비행전대를 모체로 1965년 C-46항공기를 최초로 도입하여 대구에서 창설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¹⁾

최근 미국과 다국적군에 의해 수행된 전쟁사례인 아프간전, 이라크전에서 특수작전은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아프간전의 경우 군사작전은 4단계로 구분하여 실시하였으며, 군사작전 이전인 여건조성 단계, 항공전력 및 특수작전부대를 중심으로 북부동맹군의 공세작전을 지원하였던 초기작전, 해병대 등 지상부대를 직접 투입하여 탈레반 군의 저항지를 탈환하였던 결정적 작전, 알카에다 잔당 소탕 및 빈 라덴을 체포하고 과도정부를 지원하는 안정화작전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특히 특수작전부대의 지원하에 북부동맹을 군사적으로 최대한 활용한 초기작전은 대부분의 지상전쟁은 타지크족을 중심으로 구성된 북부동맹이 역할을 수행하여 탈레반군의 사기를 조기에 저하시켜 궤멸시켰으며, 미 특수작전 부대는 항공정밀타격 전력과 연계된 특수작전을 통하여 탈레반 및 알카에다 조직의 중심을 직접 공격하여 파괴함으로써 미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슬람권 및 국제사회의 반발을 무마시킬 수 있었다. 그리고 이라크전에서는 전투 이전부터 CIA와 소위 북부 및 남부 이라크 연락반(NILE과 SILE)이라고 불리는 팀들이 먼저 이라크에 침투하여 정보수집 활동을 하면서 특수작전 부대가 조기에 진입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 하였다. 특수작전부대도 공격을 개시 이전에 이라크에 침투하였다. 특수작

1) <http://www.spcmd.army.mil/>
<http://www.wg5.af.mil:808/alw10>
http://www.wg15.af.mil:9001/alw10/ez/ez_index.jsp (검색일자 : 2013. 3. 11)

전부대의 주요임무는 이라크 서부의 알 안바르 지역의 주요 군사기지와 WMD(Weapons of Mass Destruction ; 대량살상무기 : 핵, 화학, 생물학무기 등과 같이 대량살상 및 파괴를 유발하는 무기의 총칭)²⁾ 시설로 의심되는 지역에 대한 특수정찰 수행과 “고가치 표적(High Value Target)” 으로 지명된 핵심인물의 확보였다. 고가치표적(이하 HVT)은 이라크 집권당인 바트당의 강경파 고위당원들이 대부분이었으며, HVT 목록의 맨 위에는 바로 사담 후세인(Saddam Hussein)이 있었다. 또한 이라크내 국제테러단체인 Ansar al-Islam의 근거지를 공격하기 위해 북부 이라크의 쿠르드족 군대와 밀접하게 협력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협력으로 개전 초 미 특수작전부대는 이라크 북부 쿠르드족 7만을 규합하여 비정규전작전을 수행하였으며, 이라크 북부지역 주요도시인 키루쿠크와 티크리트를 손쉽게 점령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이라크 북부의 정규 13개 사단은 수도 바그다드로 증원이 어려웠으며, 미 해병대를 포함한 지상군 본대는 수도 바그다드 점령할 수 있었다. 아프간전과 이라크전을 거치면서 미 합참은 정규부대와 특수작전부대의 통합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었고 전후 안정화작전 간 치안유지군 양성을 위한 군사훈련 지원에 특수작전부대의 역할이 중요함을 인식하였다. 두차례 전쟁에서 전쟁 승리의 결정적 역할을 수행한 미 특수작전부대는 전략적·작전적 수준의 특수정찰과 타격작전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현지 주민을 규합하여 세력을 확장하고 타 군의 중점작전을 지원하는 등의 임무수행을 통해 전쟁 종결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로 인식되는 계기가 되었다.

미래전은 첨단 과학기술의 발달을 기초로 새로운 전쟁수행 개념이 등장하고 전쟁수행 방법도 최소의 희생과 전투로 최단시간 내 결정적 승리를 추구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21세기 안보상황 또한 북한의 핵무장과 국지도발 외에도 주변국에 의한 다양한 잠재적 위협과 한·미 공동 방위체제의 변화 등이 예상되는 전환기적 안보상황이다. 이러한 현존 및 잠재적 위협에 능동적이고 신속한 대응과 더불어 대한민국의 향상된 국력에 걸맞는 국제평화유지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평소부터 적응성과 군사적 유연성 그리고 다양한 작전수행 능력을 갖춘 신속대응전력의 운용은 필수적일 것이다.

2) 합동참모본부 (2010), 『합동·연합작전 군사용어사전』, 합참참모본부, p93.

그러나 한국의 육·해·공군 특수작전 부대는 창설된 이후 양적으로는 발전하였으나 질적인 발전은 미약하다. 최근 전쟁사례와 미래전 양상을 고려하고 특히, 2015년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하여 현존 및 잠재적 위협, 그리고 비군사적 위협 등 다양한 위협에 신속하고 능동적인 대응능력과 합동성이 강화된 특수작전부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각 군이 보유하고 있는 특수작전 부대의 부대구조를 미래전에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어떻게 개편해야 하는 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와 그 대안을 제시하게 되었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연구서의 연구 범위는 동북아의 전환기적 안보상황과 미래전 양상에 기초한 신속대응부대로서의 미래 특수작전부대 발전을 위해 현재의 육·해·공군 특수작전부대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부대구조 측면에서의 발전방향 제시에 연구 범위를 두었다.

연구방법은 기존의 문헌을 연구하는 문헌조사 및 서술적 분석방법을 택하였으며 국내·외에서 발표된 각종 문헌의 연구서를 기초로 하였고 특수작전의 특성상 연구자료나 공개 자료가 부족한 것은 논자 개인의 견해를 추가 하였고 비밀에 해당되는 내용은 수록하지 않았다.

제시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서는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 특수작전에 대한 일반적 개념 및 아프간의 특수작전 사례를 고찰하고 제3장에서는 미래전 양상과 미래전에 대비하기 위한 합동특수작전사령부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미 통합특수작전사령부의 창설 배경과 세계 주요국의 특수작전부대 현황과 현대화 동향을 분석하며, 제4장에서는 한국 육·해·공군 특수작전부대의 현실태를 진단해 보고 그에 따른 문제점을 도출하여 제5장에서 한국의 특수작전부대 부대구조 발전방향인 합동특수작전사령부의 창설과 육·해·공군 특수작전부대의 부대구조 발전방향에 대해 제시하고 제6장에서 결론을 맺었다.

제 2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특수작전의 일반적 개념

1. 정 의

특수작전(Special Operation)이란 「특수작전부대가 전·평시 국내외, 적 지역 또는 분쟁 발생지역에서 국가 또는 군사목표 달성을 위해 정규군 또는 정부기관과 연계하여 수행하는 군사작전」³⁾라고 정의하고 있다.

2. 특 성

특수작전은 모든 환경에서 수행되지만, 특히 거부적이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환경에서 더욱 적합하다. 특수작전은 대규모 정규군 소요가 필요치 않은 상황에서 특수작전부대를 운용하여 단지 군사적 목표만을 달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력의 제요소인 외교, 정보, 경제분야를 지원하기 위하여 계획될 수도 있다. 특수작전은 군사작전의 전 범주(평시 군사작전, 국지전시 군사작전, 전면전시 군사작전)에 걸쳐서 운용가능하다. 이는 독립적으로 수행되거나, 정규군 또는 정부기관, 동맹국의 작전과 연계하여 수행될 수 있으며, 현지 토착세력 또는 저항세력과 함께 수행하는 작전을 포함할 수도 있다. 특수작전은 물리적 그리고 정치적 위험성의 정도, 작전기술, 운용방식, 세부적인 작전상 정보 및 현지자산에 대한 의존성면에서 정규전과 차이가 있다.⁴⁾

가. 특수작전은 본질적으로 합동성을 근간으로 한다. 특수작전은 작전시 완전한 지휘통제체계가 제공됨으로써 정규군의 계획에 통합을 용이하게 하며 응집력을 유지하고 특수작전 고유의 영역을 다룰 수 있는 통제체계를 제공하

3) 합동참모본부 (2010), 전개서. p414.

4) 합동참모본부 (2012), 『미 특수작전(번역본)』, 합참참모본부, p2.

며, 특수작전부대의 활동을 정규군(Regular Forces : 전시는 물론 평시에도 유지하는 상비군, 정규군은 국가의 법령에 의하여 정식으로 편성된 군대이며 그 행동에 관하여는 국가가 직접 이를 관할하고 또한 책임을 짐.)⁵⁾과 협조한다.

나. 특수작전부대는 정규군과 다르다. 대부분의 특수작전부대 요원들은 엄격한 선발절차를 거치며, 기본적인 특수작전 기술을 획득하기 위하여 기초 군사기술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특수임무에 적합한 훈련을 받는다. 이러한 선발절차와 양성과정으로 인해 전투력 손실 시 신속한 보충에 제한이 있다.

다. 특수작전부대는 다재다능하고 독립작전이 수행능력이 가능한 팀으로 구성된다. 편성구조는 하나 이상의 군사주특기를 보유하고 군사적 경험이 풍부한 요원들로 구성되며, 이들은 불명확하고 급격하게 변화되는 상황에서 운용 가능한 융통성있는 부대를 정규군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들의 능력은 다음과 같다.⁶⁾

- (1) 다양한 상황에 대해 준비된 대응을 위한 편성과 신속한 전개
- (2) 적성 또는 거부지역에 대한 접근성을 획득
- (3) 자체요원 및 그들이 지원하는 인원들에 대해 제한된 의무지원 제공
- (4) 자체 편제장비로 전 세계적 통신 가능
- (5) 혹독한 환경에서 외부지원 없이 작전 가능
- (6) 현지 상황을 조사 및 평가하여 신속하게 보고
- (7) 현지 군 및 민간기관, 주민들과 긴밀하게 협조
- (8) 현지에서 문제점을 해결할 능력을 갖춘 실무팀을 편성
- (9) 정규군에 비해 일반적으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강제적인 느낌의 군사적 실체(presence)를 나타내지 않으면서 은밀히 전개
- (10) 정치적으로 모호한 상황을 다루기 위해 비정규전적인 방법을 제공

5) 합동참모본부 (2010), 전개서, p329.

6) 합동참모본부 (2012),전개서, p12.

라. 특수작전부대 제한사항⁷⁾

(1) 특수작전부대는 신속하게 재보충 되거나 재조직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능력을 단시간에 확장시킬 수도 없다. 특수작전부대의 부적절한 운용(정규군의 역할을 수행토록 하거나 터무니없이 고강도의 위험성을 지닌 임무에 운용하는 등)은 이러한 희소성 자원들을 단시간에 소모시키는 위험이 있다.

(2) 특수작전부대는 정규군의 역할을 대신할 수 없다. 대부분의 경우 특수작전부대는 지속적인 정규 전투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훈련, 편성되지 않았고, 장비가 편제되지도 않았다. 따라서, 이러한 정규 전투작전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편성된 정규군을 대체하는 임무를 부여해서는 안된다.

(3) 대부분의 특수작전 임무는 외부지원을 필요로 한다. 특수작전부대는 일반적으로 정규군의 지역사령부에 제공되며, 강력한 군수 및 작전지속지원수단이 편성되지 않는다. 특수작전부대는 특수작전사령부에서 제공되어지는 고유자산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지원을 피지원 지역사령부에 의존해야 한다.

마. 특수작전부대의 임무범주⁸⁾ : 특수작전부대 및 정규군 지휘관과 계획 수립가들이 특전부대의 운용을 고려할 때 지침을 제공하는 다음 5가지 기본 범주는 특수작전부대의 운용효과를 촉진시킬 수 있다.

(1) 반드시 특수작전부대에게 적합한 임무 또는 행동이어야 한다. 특수작전부대는 통상 전략적 또는 작전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표적에 대해 운용되어야 한다. 특수작전부대는 고유의 기술과 능력을 필요로 하는 결과를 창출하는데 운용되어야 한다. 만약 임무 또는 과업이 이러한 기술과 능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특수작전부대를 운용해서는 안된다.

(2) 임무 또는 행동이 전구(Theater : 단일의 군사전략목표 달성을 위해 지상, 해상, 공중작전이 실시되는 지리적 지역.)⁹⁾ 사령관의 전역(Campaign : 전략적, 작전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실시하는 일련의 연관된 주요작전들로 수행. 이러한 작전들은 수주, 수개월의 장기간 동안에 이루어지며 그 이상으

7) 합동참모본부(2012), 전개서, pp12-13.

8) 상계서, pp13-14.

9) 합동참모본부(2010), 전개서, p288.

로 확대될 수도 있음.)¹⁰⁾ 또는 작전계획, 또는 특수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만약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특수작전부대 능력의 제한사항을 도출해 내어서 그에 적합한 임무를 조언해야 한다.

(3) 임무 또는 과업이 작전적으로 시행가능하고, 승인된 것이어야 하며, 완전하게 협조된 것이어야 한다. 특수작전부대는 소모전이나 전면전쟁에 적합하도록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능력을 초과하는 임무를 부여하거나 운용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계획수립 및 시행 간에, 정규군사령관 및 특수작전부대 지휘관, 참모들은 특히 적대적 지역 내에서 중무장한 대규모의 정규 기동부대에 대한 특수작전부대의 취약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또한 작전지역내 다른 정규군 부대의 지휘관 및 참모들과 특수작전을 동시 통합시켜야 하며, 지원소요를 제공하기 위한 시기 및 장소를 적합한 정규군 부대와 협조해야 한다.

(4) 필요한 자산이 특수작전부대의 임무를 시행 및 지원하기 위해서 반드시 가용해야 한다. 몇 가지 특수작전부대 임무는 작전성공을 위해서 다른 부대들의 지원을 필요로 하며, 특히 장기간 작전 및 제한된 지원자산으로 정규군을 지원하는 작전에서는 타 부대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지원에는 전개된 특수작전부대를 보조, 방호, 보충하고 지속성을 유지시키는 것을 망라하며, 또한 항공수송, 정보, 통신, 정보작전, 의무, 군수, 우주, 기상, 핵 및 화학방방어 및 기타 지원형태를 포함할 수 있다. 특수작전부대에게 용이한 표적 일지라도, 임무수행간 지원요소의 결핍은 성공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특수작전부대의 작전시행 가능성을 전체적으로 무효화시킬 수도 있다.

(5) 예상되는 임무수행 결과는 특수작전부대의 손실 위험성을 정당화시킬 수 있을 만큼 가치가 있어야 한다. 특수작전부대는 고가치 자산이며 숫자 및 자원 면에서 제한적이다. 지휘관들은 임무에 대한 평가 시, 임무성공의 산물이 적절하면서도 임무수행간 위험성의 정도와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위기관리분석에서는 특수작전부대 병력 및 장비의 잠재적 손실뿐만 아니라, 임무가 실패했을 경우에 외교 및 국내 정치적 이익에 대해 악영향을 끼칠 위험성까지도 고려해야 한다. 특수작전부대의 운용이 전구사령부의 전역

10) 합동참모본부 (2010), 전계서, p3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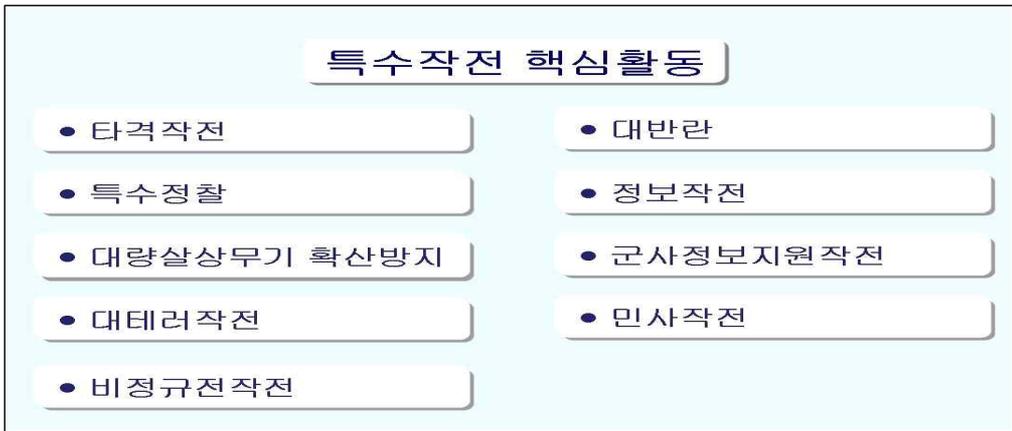
또는 작전에 비례적으로 더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력을 제시할 수도 있는 반면에, 어떤 경우에는 병력 및 장비손실의 위험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단지 최소한의 작전 기여도만 제공할 수 있게 특수작전부대를 운용할 수도 있다. 특수작전의 시행을 고려할 때, 지휘관들은 작전적 이득의 가능성과 특수작전부대의 손실 가능성간에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

3. 특수작전 핵심활동¹¹⁾

특수작전부대는 그림 2-1에 기술한 바와 같이 9가지 핵심활동(타격작전, 특수정찰,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대테러, 비정규전작전, 대반란, 정보작전, 군사정보지원작전, 민사작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편성되고 훈련되며 활동에 적합한 장비를 갖춘다. 핵심활동은 특정부대의 역량보다는 모든 특수작전부대의 집합적 능력을 의미한다. 정규군 또한 다양한 활동(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대반란, 대테러, 정보작전, 민사작전 등)들을 수행하지만, 특수작전부대는 특수화된 전기, 전술 절차를 사용하여 정규군 능력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특유의 조건과 기준으로 이러한 핵심활동을 수행한다. 정규군과 함께 특수작전부대를 운용하는 것은 추가적으로 특유의 능력을 창출하게 하는데, 이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성공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수작전부대는 광범위한 범주의 전략 및 작전적 문제에 적합한 방책들을 상급부대에 제공하기 위해 자체 능력을 조합적으로 배치하고 통합할 수 있다. 또한 특수작전부대는 대마약작전과 비전투원 후송작전과 같은 부차적인 성격의 기타 활동들을 수행할 수 있다. 특수작전부대는 또한 미래에 수행 될 수도 있는 핵심활동들을 지원하는 여건조성활동의 특수작전을 수행한다.

11) 합동참모본부 (2012), 전계서, pp17-19.

[그림 2-1] 특수작전 핵심활동



출처 : 합동참모본부(2012), 『미 특수작전 번역본』

가. 타격작전(Direct Action: DA)¹²⁾. 타격작전은 적대적, 거부적, 또는 외교적으로 민감한 환경에서 특수작전으로 수행되는 단기간의 타격과 소규모의 공세행동을 의미하며, 여기에서는 지정된 표적을 확보, 파괴, 탈취, 이용, 회복 또는 손상시키기 위해 특수화된 군사능력을 운용한다. 타격작전은 외교 또는 정치적 위험성, 운용되는 작전기술, 특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차별적으로 정확하게 부대를 운용하는 수준면에서 정규군의 공세행동과 차이가 있다. 이러한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특수작전부대는 기습, 매복, 또는 기타 직접돌격전술(백병전 포함); 지뢰 및 기타 폭발물 매설; 공중, 지상, 또는 해상발사대로부터 화력에 의한 원거리 공격; 정밀유도무기에 대한 최종유도; 독자적인 태업활동; 선박승선 및 확보작전은 물론 대함작전(예, 해상차단작전)에 운용될 수 있다.

(1) 통상 작전범위 및 지속기간 면에서 제한을 받기 때문에, 타격작전은 일반적으로 계획된 목표지역으로부터 즉각적인 철수를 반영한다. 이러한 작전은 작전적 및 전략적 전쟁수준에서 명확한 특정결과, 그리고 종종 시간상 민감하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

(2) 특수작전부대는 타격작전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도 있고, 또는 보다 대규모의 정규 또는 비정규 작전이나 전역의 일부로서 수행할 수도 있다. 통상 타격작전은 근접전투로 고려를 하지만, 저격 및 특수작전부대가 투발 또는

12) 합동참모본부 (2012), 전제서, p16.

유도하는 화력에 의한 원거리 타격도 포함한다. 근접전투가 아니더라도 표적을 손상시키거나 파괴할 수 있을 때, 원거리 타격이 더 선호된다. 특수작전부대는 임무가 정확하거나 선별적인 부대의 사용 또는 인원이나 물자의 회수, 탈취를 요구할 때는 근접전투 전술과 기술을 운용한다.

(3) 타격작전 임무는 또한 민감, 거부, 또는 교전지역에 고립되어서 위협을 받고 있는 아군통제하의 선별된 인원 또는 물자의 위치를 확인하고, 회수 및 복원하는 활동도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임무들은 일반적으로 격오지 또는 적대적 환경에서 회수할 인원이나 물자의 정치적 민감성 또는 군사적 중요성을 수반하는 상황 때문에 수행된다. 이러한 상황은 정치적 변화, 전투행동, 우발적 사고, 또는 의도되지 않은 재난 때문에 발생할 수도 있다. 타격작전은 일반적인 인명구조(personnel recovery) 작전이 전담 지상전투제대, 독창적인 기술, 정확한 생존자 관련정보, 현지지원요소를 이용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4) 독립 또는 연합작전 중 어떤 방식으로 수행하든지간에, 타격작전은 단기간의 분리된 활동이다. 특수작전부대 사령부는 피지원 사령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타격작전을 시행한다.

나. 특수정찰(Special Reconnaissance: SR)¹³⁾. 특수정찰은 정규군이 통상적으로 보유하지 않은 군사능력을 운용하여, 전략적 또는 작전적으로 중요한 첩보를 수집하거나 검증하기 위하여 적대적, 거부적, 또는 외교적으로 민감한 환경에서 특수작전부대에 의해 수행되는 수색 및 감시활동을 의미한다. 이러한 활동은 지휘관들에게 추가적인 첩보수집능력을 제공하며, 다른 재래식 수색 및 감시활동을 보완해 준다. 특수정찰에는 실제 또는 잠재적인 적의 활동에 관한 첩보수집 또는 특정지역의 기상, 수로, 지리적 특성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는 활동을 포함할 수 있다. 특수정찰에는 또한 거부적 지역 내의 화학, 생물학, 잔류 핵, 방사능, 또는 환경 위해요소에 관한 평가활동을 포함할 수 있다. 특수정찰에는 표적획득, 지역평가, 타격 후 수색활동을 포함하며, 항공, 지상, 또는 해상자산을 이용하여 임무를 달성할 것이다.

13) 합동참모본부 (2012), 전계서, pp18-19.

(1) 특수정찰은 특정분야의 확실하고 시간적으로 민감한 전략적 또는 작전적으로 중요한 첩보를 획득함으로써, 국가 및 전구 정보수집자산과 체계를 보완한다. 특수정찰은 또한 기상, 지형적 차폐, 또는 적의 대응책으로 인해 제한을 받는 다른 수집수단을 보완할 수도 있다. 선발된 특수작전부대는 작전이 승인될 경우에 적대적, 거부적, 또는 외교적으로 민감한 영토 내에서 “표적에 대한 눈(eyes on target)”을 제공하기 위하여 특수정찰을 수행한다. 특수정찰은 일반적으로 지휘관이 지휘결심, 후속임무, 또는 중요평가를 하는데 필요한 상황인식을 발전시키기 위한 필수첩보를 제공한다.

(2) 특수작전부대에 의한 특수정찰은 정규군, 특수작전부대, 또는 정규군-특수작전부대의 통합제대 중 어느 제대에 의해 수행되는 작전에 구분없이 전구사령관의 상황인식 능력을 증대시키고, 참모들의 계획수립 및 시행을 용이하게 만들어 준다. 그러나 정규군-특수작전부대의 통합개념이 특수작전부대가 정규군을 위한 전담 정찰자산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전구사령관은 합동특수작전지역(JSOA)¹⁴내에서 특수정찰을 제공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합동특수작전기동부대(JSOTF)¹⁵나 전구특수작전사령부(TSOC)¹⁶를 경유하여 특수작전부대에게 임무를 부여하거나, 정규군 작전지역 내에서 수행되는 개별적인 특수정찰 사안별로 전구사령관이 특수작전부대에게 임무를 부여할 수도 있다.

(3) 특수작전부대는 또한 현지자산을 활용할 수 있는 개량된 정찰 및 감시센서와 인간정보(Humint)¹⁷ 수집수단을 운용할 수도 있다.

14) JSOA(Joint Special Operations Area, 합동특수작전지역) : 특수작전활동을 수행하도록 합동군사령관이 1개 합동특수작전부대 지휘관에게 부여한 지상, 해상, 공중의 공간지역. 독립적인 타격작전 임무를 수용할 수 있는 크기로 제한을 둘 수도 있으며, 또는 광범위한 정규전 작전을 지속적으로 허용할 만큼 충분히 확장될 수도 있다.

15) JSOTF(Joint Special Operations Task Force, 합동특수작전기동부대) : 1개 군 이상의 특수작전부대들로 구성된 합동기동부대로, 특정 특수작전을 수행하거나, 또는 전구전역 또는 기타 작전들을 지원하기 위한 특수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편성된다.

16) TSOC(Theater Special Operations Command, 전구 특수작전사령부) : 합동특수작전을 계획, 협조, 수행, 지원하기 위하여 전투사령관이 설치하는 예하 통합군사령부로 한반도 전구 특수작전사령부는 주한 미 특수작전사령부이다.

17) 인간정보(Human Intelligence) : 인간의 직접적인 활동을 통하여 획득되는 모든 첩보 및 정보, 특수작전부대, 정규군의 접적부대와 특공 및 수색부대, 비정규전 부대, 포로 및 귀순자, 노획된 문서, 수색 및 정찰, 관측 등을 통해 획득함.

다.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Counterproliferation[CP]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WMD]).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위협이나 사용을 좌절시키기 위해 취하는 행동을 말한다. 대량살상무기는 고성능의 파괴능력을 지니거나 대량 사상자를 유발하는 화생방, 또는 핵무기를 말하며, 무기부분으로부터 분리될 수 있는 부분인 무기를 운반하고 추진하는 수단들은 고려하지 않는다. 확산금지(nonproliferation), 확산방지(CP), 후속감축활동들을 포함하는 대량살상무기 대응정책에 대한 주요 목표는 대량살상무기 및 운반체계의 확보를 예방하고, 이미 확보되어 있는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저지하거나 제거하며, 대량살상무기의 사용과 운반체계의 사용을 억제 및 좌절시키고, 특수작전부대를 개입시켜서 대량살상무기 및 운반체계에 의해 조성된 위협에 대응하는 작전계획을 수립하며, 대량살상무기의 영향을 경감시키는 것이다. 대량살상무기 기술의 지속적인 확산은 한반도 전구와 동북아의 불안정 상태를 증폭시킬 수 있으며, 테러단체들에게 잠재적으로 새로운 무기를 제공할 수 있다. 특수작전부대는 이러한 핵심활동을 위해 다음과 같은 능력을 제공한다.¹⁸⁾

- (1) 필요시, 대량살상무기의 위치를 확인하여, 리스트를 작성하고 추적하기 위하여 피지원 전투사령부에 전문가 및 물자, 팀을 제공
- (2) 필요시, 접근이 제한적인 지역에 대한 타격작전 수행능력 제공
- (3) 확산방지활동을 위한 정규군의 역량을 지원
- (4) 대량살상무기와 관련된 적이 이를 포기하도록 정보작전(IO)¹⁹⁾ 및 군사정보지원작전(MISO)²⁰⁾을 수행
- (5) 대량살상무기에 대응하기 위한 기타 특수능력 제공

라. 대테러. 테러는 수십 년에 걸쳐서 특정 주민들내에 공포심을 유발시키는 전술로부터 전략적 차원의 초국가적 위협에 이르기까지 진화되어 왔으며

18) 합동참모본부 (2012), 전계서, pp19-20.

19) 정보작전(Information Operations) : 적의 의사결정체계에 영향을 미치고 교란, 변질 및 훼손시키며 아군의 체계는 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정보작전의 지원기능 및 관련기능과 협조하고 정보작전의 핵심기능인 전자전, 컴퓨터네트워크 작전, 심리작전, 군사기만 및 작전보안을 통합 운영하는 작전.

20) 군사정보지원작전(Military Information Support Operations) : 기존 '심리작전(PsyOP)' 용어의 변경안으로 미 특수작전 하위형태 재정립시 변경된 용어.

특히, 미국, 서방세계, 그리고 신흥 민주주의 국가들에 대해서 폭력적 극단주의 단체들에 의해 우선적으로 이러한 테러가 지속되어 왔다. 오늘날, 극단주의자들이 지역반군이든 또는 국제테러조직의 일원이든간에, 이들이 테러리스트의 전술을 사용한다면 일반적으로 테러리스트로 간주한다. 더 나아가서 대량살상무기의 지속적인 확산이 테러리스트들에게 이러한 무기의 획득과 사용기회를 제공함에 따라, 폭력적 극단주의자들에 의해 조성되는 위협은 계속 증가할 것이다.

(1) 대테러는 직접적으로 테러조직에 대해 취하는 행동이며, 또한 간접적으로는, 전 세계 및 지역별 환경이 테러조직에게 불리하도록 영향을 미치게 하는 행동이라고 정의한다. 특수작전부대의 핵심활동에 추가하여, 대테러는 국방부의 대테러전(combating terrorism: CbT)²¹⁾이라는 광범위한 개념의 일부분이며, 여기서 대테러전(CbT)은 방어적대테러(AT: antiterrorism)²²⁾ 및 공세적대테러(CT: counter terrorism)²³⁾를 포함하여, 전체적인 위협의 연속성 속에서 테러리즘에 대응하여 취하는 행동이다.

(2) 대테러는 직접 및 간접접근법이 있으며 두가지 접근법 모두의 통합을 필요로 한다. 두 접근법 모두를 다루고 이들의 상승효과를 이용하는 능력은 국가적 차원의 테러대응정책에서 시작되며 단기 및 장기 대테러 목표 모두의 성공에 결정적인 요소이다.

(가) 직접접근법. 직접접근법은 테러리스트 조직망을 무력화 또는 파괴함으로써 특정위협을 완화 또는 제거하고 위협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테러리스트 및 그 조직에 대응하여 취하는 행동으로 이루어진다. 이 접근법에는 대테러, 특수정찰, 타격작전, 군사정보지원작전, 정보작전, 민사작전,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와 같은 특수작전부대의 핵심활동 이용이 포함된다.

(나) 간접접근법. 간접접근법은 범세계 대테러 네트워크가 대테러 작전/

21) 대테러작전(Combatting Terrorism ; CbT): 테러 위협 전반에 걸쳐서 테러리즘에 대응하기 위한 제반 활동. 대테러작전에는 '방어적 대테러(antiterrorism ; AT)'와 '공세적 대테러(counterterrorism ; CT)'가 있음.

22) 방어적 대테러(antiterrorism ; AT): 테러 행위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반 방어적 조치.

23) 공세적 대테러(counterterrorism ; CT): 테러행위자나 조직을 직접 공격하거나 국가 또는 지역 단체가 테러행위자나 조직에게 협조하지 않도록 영향을 행사하는 제반 활동.

전역이 수행되는 작전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단들로 구성된다. 이 접근법은 통상 범세계 대테러 네트워크(GCTN)관련 우방국들이 테러리스트 및 그 조직들에 대한 대응작전을 수행 가능하도록 취하는 행동뿐만 아니라, 테러리스트 조직의 능력을 쇠퇴시키고 지원 및 은신처를 획득하는 능력을 축소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들의 작전환경에 대한 여건을 조성하고 안정화시키기 위하여 취하는 행동을 망라한다. 간접접근법에는 보안군지원, 정보작전, 군사정보지원작전, 민사작전과 같은 특수작전부대의 핵심활동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활동들은 안정화작전, 대정보, 민군작전 및 전략적 의사소통(strategic communication)과 결합되어 상승작용을 일으킴으로써 우방국들이 테러리스트 조직에 대응하고, 테러리즘에 대한 묵시적 및 적극적 지원을 억제하며, 테러리스트 이념에 대한 지원을 약화시킨다.

마. 비정규전작전(Unconventional Warfare Operations). 비정규작전은 거부적 지역(denied area)내에서 지하 및 외부지원, 게릴라 부대를 운용하여 적대적 정부를 압박하고, 혼란에 빠뜨리거나 전복시키고 또는 권력을 장악하기 위하여 저항운동이나 반란행위를 용이하게 하도록 하기위해서 수행하는 활동들을 말한다. 특수작전 부대는 적대적 정권을 전복시키고자 반군운동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적 정규군을 와해시키기 위한 저항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비정규전작전을 수행한다. 비정규전작전은 적대적 정부 또는 점령군에 대해 직간접적인 압력을 가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²⁴⁾

(1) 군 지휘관들은 비정규전작전에 개입하는 것을 건의하기 전에 비용과 이익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적절하게 협조되어서 시행된 비정규전작전은 공공연하게 정규군을 투입할 필요가 없이 유리한 측면에서 위기해결 상황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2) 비정규전작전의 수행으로 군사-정치상의 실리를 챙길 수 있으며, 여기에는 국내 및 국외 모두에서 상당한 정치적 위험이 잠재적으로 내재하고 있다. 비정규전작전의 준군사적 측면은 국방부로 하여금 타 정부기관에 대해서

24) 합동참모본부 (2012), 전개서, pp22-24.

지원역할의 위치에 놓이게 할 수도 있다. 다양하게 조합된 은밀한 수단과 방법을 운용할 필요성 때문에 작전보안과 전출처 정보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 국방부는 분쟁 시나리오 내의 비정규전작전에서 민감한 작전을 가능하게 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타 정부기관들과 긴밀하게 협조해야 한다.

(3) 전구사령관은 통상 특수작전부대에게 비정규전작전의 군사 분야를 수행하도록 임무를 부여한다. 이러한 경우, 일반적으로 다수의 정부기관 및 각 군 구성군들과 지원관계를 필요로 한다. 전구사령관 및 참모는 전통적인 전쟁과 비전통적인 전쟁 중 어떤 경우라도 비정규전작전을 동시에 수행/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4) 각각의 비정규전작전 임무가 독특하기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비정규전작전은 다음의 7단계로 이뤄진다. 준비, 최초접촉, 침투, 편성, 구축, 운용, 전환. 이 단계들은 어떤 경우에는 동시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으며, 또는 비정규전작전 활동을 개시하기 위해서 최초접촉 및 군수지원 구축만을 필요로 할 수도 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그 외 준비, 침투, 편성의 초기단계를 건너뛸 수도 있다. 각 단계들은 또한 중점을 두는 정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순서에 관계없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특수작전부대와 함께하든 함께하지 않던 간에 토착 비정규군 요원들이 지정된 작전지역에 다시 침투하기 전에 훈련, 편성, 장비를 갖추기 위하여 다른 나라로 이동하는 경우이다.

(5) 전구사령관은, 비정규전작전은 조건이 성숙되고 최대효과에 도달하기 위한 시간, 특히 모든 반군 또는 저항세력의 지하망이 구축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바. 대반란(Counterinsurgency: COIN). 전시 자유화지역내에서 발생한 반란을 분쇄하고 어떠한 불만요소라도 다루기 위해 취하는 포괄적인 민간 및 군사적 노력을 의미한다. 특수작전부대의 전투기술, 경험, 인간정보 네트워크 운용 등의 능력은 그들로 하여금 현지 우호세력과 함께 활동하고 또는 정규군과 통합하여 작전하는 광범위한 범주의 임무를 수행가능하게 하며, 이는 이라크와 아프간전의 대반란 작전이나 전역에 있어 가장 효율적으로 작전을 수

행한 부대가 특수작전부대라는 전훈분석으로 증명되었다.²⁵⁾

(1) 작전적 접근법. 대반란에 대한 3가지 주요 작전적 접근법이 있다. 직접, 간접, 균형 접근법. 직접 접근법은 반군을 공격함으로써 국가의 이익을 방호하는데 중점을 둔다. 간접 접근법은 특수작전부대의 지원으로 인해 피지원자가 성공을 달성하도록 여건(안정적이며 치안이 더욱 강화된 환경)을 조성해 주는데 중점을 둔다. 균형 접근법은 직접 및 간접 접근법을 혼합시킨 것이다. 지휘관들은 상황의 변동에 따라 접근법을 조정한다, 그러나 대반란에 대한 접근법은 직접 접근법으로부터 균형접근법으로 점차적으로 전환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간접접근법으로 가야한다. 그러나, 어떤 접근법이든 대반란 작전 또는 전역에 대한 작전소요 및 전반적인 목표에 따라 노력의 크기는 다양할 것이다.

(2) 특수작전부대의 대반란에 대한 기여. 특수작전부대의 대반란에 대한 기여는 모든 접근법에서 대단히 결정적이다. 직접 접근법에서 전투원으로서 이들의 역할은 즉각적인 타격과 함께 신속하고, 강제적이며, 충분하게 치명적 행동능력을 제공하며, 균형 접근법과 간접 접근법을 사용하기 위한 시간을 벌어준다. 특수작전부대는 전투원뿐만 아니라 전투기술 훈련교관 및 자문관으로서 균형 접근법 및 간접 접근법에 아주 적절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 특수작전부대의 지원으로 현지 비정규전 부대의 능력과 역량을 증대시킬 수 있다.

(3) 작전환경 판단. 대반란 작전의 준비단계에서 특수작전부대가 핵심적으로 기여하는 것 중 한 가지는 작전환경을 판단하여 정규군과 지원 정부기관들의 진출을 준비하는데 기여하는 것이다. 이는 평가, 여건조성, 정보활동을 통해서 달성되며, 몇 가지는 비전통적인 정보출처로부터 획득할 수 있다. 특수작전부대는 문화정보 개발을 지원하고, 주민의 인식과 행동을 측정하며, 지역정찰을 통하여 상황에 대한 지식을 획득하고, 정규군이 배치될 수 없는 지역에서 은밀하게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

(4) 중심(Center of Gravity). 대반란 작전시 전형적인 전략적 중심은 현지 주민이다. 따라서 반드시 주민을 보호하고 주민의 지원을 획득 및 유지해야 한다. 특수작전을 수행할 때 비례적이고 선별적인 부대 운용으로 신중하고 정

25) 합동참모본부 (2012), 전계서, pp28-30.

확한 부대사용의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그들의 훈련능력, 지역에 대한 정통한 지식, 문화인식, 관련 주민 속의 사회적 역동성에 관한 이해도를 갖춘 특수작전부대는 통일정부에 대한 합법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현지주민 및 치안유지군들과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는데 중점을 둔다.

사. 정보작전(Information Operations: IO). 정보작전은 군사작전 시 아군의 정보를 보호하면서, 적 및 잠재적인 적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와해, 붕괴시키거나, 또는 탈취하기 위하여 다른 작전들과 협력하여 정보관련 능력을 통합적으로 운용하는 것이다. 전반적인 작전의 일부로서 적절하게 협조, 통합, 동시통합(synchronization)될 때, 정보작전은 의사결정자들에게 가용한 정보의 질, 내용, 가용성면에서 영향을 미친다. 정보작전은 또한 주요 목표대중들(TAs: target audiences)로 선정된 목표와 요망 최종상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어떤 면에서는 행동하는데 확신을 갖게 할 목적으로 그들의 인식과 동기에 영향을 미친다. 정보작전은 모든 수준의 전쟁에서, 군사작전의 전 범주에 걸쳐서 모든 작전단계에서 수행된다.²⁶⁾

(1) 정보작전은 특수작전 임무를 성공적으로 달성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특수작전부대의 다른 핵심활동들을 촉진시킨다. 예를 들면, 전자전(EW)²⁷⁾과 컴퓨터 네트워크 작전(CNO: computer network operations)²⁸⁾은 성공적인 특수작전 임무달성을 위한 아군의 필수조건을 보호하면서 적의 통신망을 와해시킨다. 유사하게, 작전보안은 적이 특수작전부대의 능력과 의도를 정확하게 평가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거부한다. 군사정보지원작전(MISO)은 정보작전과 특수작전부대의 주요활동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구성요소이며, 다양한 목표대중들(TAs)에 대한 다른 특수작전 활동들(예, 대테러 또는 대반란)의 심리적 영향(긍정적 또는 부정적)을 가장 효과적으로 사

26) 합동참모본부 (2012), 전개서, pp31-33.

27) 합동참모본부 (2012a), 『합동정보작전』, 합참참모본부, p-5.

전자전(Electronic Warfare) : 전자기파 스펙트럼을 통제하거나 적을 공격하기 위하여 전자기 및 지향성 에너지의 이용 등을 포함한 제반 군사활동. 전자전은 전자공격, 전자보호 및 전자적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28) 상계서, p-7.

컴퓨터 네트워크 작전(Computer Network Operations) : 컴퓨터와 컴퓨터네트워크에 내재된 정보 또는 네트워크 자체를 공격하여 붕괴시키거나.

용하고, 적의 전투의지를 저하시키는데 운용될 수 있다. 군사기만(MILDEC: Military deception)은 적 의사결정자들에게 아군의 군사능력, 의도, 작전에 대해서 일부러 오판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전자전 및 컴퓨터 네트워크 작전, 군사기만의 상호통합은 적이 특정행동을 취하도록(또는 취하지 않도록) 강요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특수작전부대 활동들(예, 타격작전)의 효과를 증진시키는데 기여한다.

(2) 유사한 방식으로, 다른 특수작전부대 활동들은 정보작전을 보완하며, 전략적 및 작전적 정보작전 관련 목표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지원을 제공한다. 예를 들면, 특수정찰(SR) 및 타격작전(DA)은 적의 지휘통제(즉, 의사결정)절차와 관련된 특정능력을 식별, 관측, 표적선정, 와해, 탈취 또는 파괴시킬 수도 있다. 또한, 성공적으로 수행된 비정규전, 대반란은 적의 사기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심리적 충격을 줄 수 있거나, 적의 인원모집 및 자금운용능력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수 있다. 특수작전부대는 또한 대규모 부대가 있는 것처럼 반복적인 전술적 충격을 적에게 가함으로써 군사기만(MILDEC)에서 주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3) 특수작전부대 지휘관 및 참모들은 결정적인 능력과 정보를 보호하고, 임무 및 부대에 대한 전반적인 위협을 감소시키며, 임무성공 가능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작전의 모든 단계에 걸쳐서 정보작전을 통합해야 한다. 정보작전 계획수립가들의 역할은 지휘관의 목표와 선택된 방책에 따라서, 정규군 또는 특수작전부대 중 어느 것이 제공되든 간에, 정보작전과 지원 및 관련된 능력을 협조, 통합, 해결, 동시통합시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특수작전부대 본부에 위치한 정보작전반은 정보환경 내뿐만 아니라, 앞서 기술한 특수작전부대 목표와 관련하여, 보다 큰 작전적 및 전략적 최종상태에 대해서도 특수작전 활동과 정보작전이 결합된 효과를 최대한으로 활용하는데 결정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아. 군사정보지원작전(Military Information Support Operations: MISO). 군사정보지원작전은 선별된 정보 및 징후를 전달하여 목표대중(TAs)들의 감정, 동기, 객관적 이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대상 정부, 기관, 단체, 개인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계획된 작전을 말한다. 군사정보지원 작전의 목적은 계획수립자가 세운 목표에 유리하도록 대상자들의 행동과 행위를 유도 또는 강화하는 것이다.²⁹⁾

(1) 군사정보지원 작전은 특수작전부대 및 정규군이 수행하는 작전/전역의 모든 단계 동안에 통합되어야 한다. 효과적인 군사정보지원 작전을 위해서는 지휘관의 강력한 관심과 능동적인 개입이 요구된다. 군사정보지원 작전을 수행하는 특수작전부대 및 계획수립 참모들은 작전전반에 걸쳐서 군사정보지원 작전을 통합함으로써 지휘관을 보좌한다. 군사정보지원 작전은 국가급 기관에서 지시한 임무를 고려한 승인지침에 따라 신중하게 검토 및 승인된 프로그램 내에서 시행된다.

(2) 군사정보지원 작전 계획수립자들은 철저한 환경 분석; 관련 목표대중들(TAs)의 선별; 문화 및 환경에 적합한 메시지와 행동에 중점을 둔 계획수립; 정교한 언론매체 전달수단 운용 및 현저하게 눈에 띄면서도 적절한 대응 행동을 통해서 지휘관의 목표와 일치하면서 신중하지만 신속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그러나 군사정보지원 작전은 보다 큰 규모의 합동군 및 다른 정부기관의 능력으로 수행되는 보완적 활동과 완전하게 통합 및 동시통합될 때 가장 성공적으로 수행된다. 만약 군사정보지원 작전에 의해서 목표대중들(TAs)의 단기적 태도 및 인식과 장기적 행동이 변화를 일으킬 만큼 설득되어질 수 있다면 합동군의 메시지와 행동이 일치하여야 한다.

(3) 군사정보지원 작전은 특수작전 내에서, 그리고 다른 각각의 특수작전부대 핵심활동과 연계되어서 주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대반란, 대테러, 비정규전과 같은 이념 및 사회-정치적 차원에 초점을 맞추는 비정규 분쟁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군사정보지원 작전 계획수립 참모들과 이를 지원하는 군사정보지원 작전 부대들은 특수작전사령부 목표와 정부의 정책달성을 위해 작전적 위험을 감소시키고, 주요 주민들의 협력을 얻어내며, 특수작전의 충격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세부적인 계획수립 및 시행을 제공한다.

29) 합동참모본부 (2012), 전계서, pp33-35.

자. 민사작전(Civil Affairs Operations: CAO). 민사작전은 군부대가 운용되는 지역 내에서 군부대와 민간기관 사이의 관계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민사부대가 수행하는 작전이다. 이는 다른 정부기관, 국제기구, 비정부기구, 현지주민 및 기관, 민간기구와 협조를 필요로 한다. 이는 계획된 민군작전의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통상 민간정부의 책임인 민사분야의 기능적 주특기 기술적용을 수반한다. 모든 민군작전은 전구사령관의 의도 및 작전개념에 동시 통합되고 이를 지원해야 한다. 민사의 모든 핵심과업은 전구사령관의 민군작전 목표를 지원한다.³⁰⁾

(1) 특수작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행되는 민사작전은 일반적으로 대규모 부대의 지원없이, 고립되고, 적박하며, 대부분의 경우 정치적으로 민감한 환경에서 소규모 민사팀 또는 제대가 수행하는 활동으로 특징지어진다. 이러한 민사작전은 독특하며, 민사팀에게 융통성과 창의성을 요구한다. 이러한 민사작전의 성공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특수작전사령부 민사참모의 계획수립 및 지원을 필요로 한다. 또한 이러한 작전은 분권화된 시행을 위해서 다양한 민간 및 군 관련자들과 보다 확대된 수준의 계획수립 및 협조가 필요하다.

(2) 민사작전은 정부의 정책 또는 지역군사령관이 부여한 임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책임부대 및 민간기관, 다른 정부기관, 비정부기구, 또는 국제기구들과 협조하기 위하여 취하는 다음과 같은 활동들로 구성된다. 민사 핵심과업은 다음과 같다.

- (가) 주민 및 자원통제
- (나) 해외 인도주의적 지원
- (다) 국가원조
- (라) 민간행정기구 지원
- (마) 민간정보관리

(3) 민사작전은 민군작전을 수행하는 지휘관에게 특정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편성, 훈련, 장비된 민사부대들에 의해서 수행된다. 작전지역에 대한 책임을 가진 지휘관들은 통상 해당 지역 내 민간주민에 대한 책임도 동시에 가질 것이다. 지휘관들은 군사작전을 용이하게 하고 작전적 목표를 확보하기 위

30) 합동참모본부 (2012), 전계서, pp35-38.

하여 허용적(permissive) 또는 적대적(hostile) 환경 내에서 군 부대 및 민간기관(정부기관 및 비정부기관) 그리고 민간주민 사이의 관계를 구축하고, 유지하며, 영향을 주고, 활용하기 위하여 민군작전을 수행한다. 민사부대들은 통상 지역정부에 대한 책임을 가진 군 부대가 수행하는 활동 및 기능을 지원할 수도 있다. 민군작전은 군사작전이 개시되기 전, 또는 기간 중에 수행할 수도 있으며, 특히 안정화작전 기간 중에 많이 수행한다.

4. 특수작전 수행절차

특수작전의 작전수행은 부대가 부여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취하는 제반활동으로 지휘관은 임무에 기초하 가용전투력을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특수작전부대는 광범위한 작전지역에서 소수의 인원과 제한된 장비 등 열악한 여건을 극복하고 특수작전을 수행함으로써 지상군을 포함한 타구성군사 작전에 기여해야 한다. 이러한 특수작전의 일반적인 작전수행 절차는 통상 침투전 준비, 침투, 작전실시, 연결 및 복귀의 4단계로 구분된다. 침투전 준비는 작전보안 유지 하 특수작전 의 전반적인 계획을 구체화 시키는 격리지역 활동과 육상·해상·공중 침투를 위한 발진기지 활동으로 구분된다. 침투는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적 지역으로 은밀히 이동하는 단계로 육상, 해상, 공중침투로 구분된다. 작전실시는 임무를 수행하는 단계로 준비, 이동, 실시, 철수의 4단계 절차로 구분된다. 연결 및 복귀는 특전부대 상호간 또는 특전부대와 지상군 및 상륙군과 합류하는 연결과 특전부대 단독 또는 주어진 자산에 의해 아군지역 또는 아 통제지역으로 이동하는 복귀로 구분된다.

제 2 절 아프간 전쟁간 특수작전 사례분석

1. 개 요

다국적군 특수작전부대가 참여한 가운데 걸프전 및 코소보전보다 한 차원 높은 C4ISR전력과 정밀타격체계를 활용하여 전쟁을 수행하였으며, 특히 국제적 협력을 위한 신속대응부대의 역할과 새로운 형태의 전쟁 수행을 위한 특수작전부대·심리작전·신종 첨단무기의 중요성이 부각된 전쟁이었다.³¹⁾

2. 군사작전³²⁾

가. 작전목표

- 1) 『오사마빈 라덴』 제거
- 2) 탈레반/전쟁지도부 격멸
- 3) 아프가니스탄內 테러조직 완전 분쇄
- 4) 아프가니스탄內 친미 과도정부 수립여건 조성

나. 작전주안

- 1) 탈레반 정권 군사기능 마비(탈레반 정권파괴, 새정부 구성)
- 2) 방공, 지휘시설 및 공군기지 등 핵심 군사시설 파괴
- 3) 알카에다 조직 및 테러 훈련기지 파괴
- 4) 지상군 투입여건 조성
- 5) 전략적 심리전 구사, 아프간 내부붕괴 추진 및 확산방지
- 6) 특수작전부대 투입, 아프간 북부동맹 지상작전 지원
- 7) 공격작전과 인도적 지원 병행

* 난민구호 및 경제적 지원 약속을 통한 이슬람자극 회피

다. 단계화작전(4단계로 구분)

- 1) 1단계('01. 9. 14 ~ 10. 6) : 여건조성
가) 작전주안 : 군사협력 및 군사력 전개

31) 합동참모본부 (2002), 『아프간 전쟁 종합분석』, 합동참모본부, pp8-10.

32) 상계서, pp38-40.

나) 작전양상

- (1) 예비군 동원
- (2) 항모전투단 추가전개
- (3) 특수작전(CIA 및 특수작전부대 투입)
- (4) 심리작전 수행

2) 2단계('01. 10. 7 ~ 11. 25) : 초기작전

가) 작전주안 : 항공작전 및 특수작전

나) 작전양상

- (1) 공중폭격 위주 항공작전

*특수작전부대가 채공중인 항공폭격전력에 표적관련 첩보제공과 정밀 항공화력 유도

- (2) 아프간 북부동맹 지상작전 지원

*공습 11일째부터 탈레반군 북부기지 공격

- (3) 소수 정예 특수작전부대 투입

* 빈 라덴 색출, 공격목표 정보 획득

3) 3단계('01. 11. 26 ~ 12. 22) : 결정적작전

가) 작전주안 : 항공작전 및 지상작전

나) 작전양상

- (1) 항공작전 지속 : 주임무를 공중폭격에서 항공정찰로 전환

(2)특수작전부대 및 소규모 지상군(해병대) 투입 : 탈레반 지도자 및 빈라덴 체포

다) 주요 작전 : 칸다하르 작전

4) 4단계('01. 12. 23 ~ 현재) : 안정화작전

가) 작전주안 : 알카에다 잔당 소탕 및 빈 라덴 체포

나) 작전양상

- (1) 알 카에다 잔군에 대한 정찰감시

- (2) 특수작전부대 및 소규모 지상군 위주 작전

- (3) 아프간 과도정부 지원

다) 주요 작전 : 아나콘다 작전, 빈라덴 사살

3. 특수작전³³⁾

가. 개 요

1) '01. 10. 7 군사작전 개시 이전부터 CIA 공작요원과 병행하여 특수작전부대를 투입('01. 9. 15)하여 현지 정보수집 등의 임무수행

2) 특수작전부대 주요 임무

가) 비정규전(아프간 북부동맹군 지원하여 탈레반군 소탕)

나) 타격(항공화력유도, 습격, 매복, 교란/차단 등)

다) 특수정찰(핵심표적에 대한 첩보수집)

라) 아프간 군, 경찰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

나. 투입 전력

1) 미국 : 인원 미상의 육군 Rangers / Delta Force, 해군 NAVY SEAL, 해병대 특수작전부대, 공군 MC-130 특수작전 항공기 등

2) 영국 : SAS 약 100여명, 해병대 200여명

3) 기타 : 호주(150명), 프랑스(200명), 이태리(200명), 터키(90명)

다. 주요 작전현황

1) 북부동맹 공세작전기간 중 북부동맹과 같이 행동하며 지원하고, 남부 지역에서는 빈 라덴과 탈레반 및 알카에다의 간부를 생포하기위한 특수정찰, 타격작전 임무수행

가) 북부동맹 공세작전('01. 10. 12 ~ 12. 6)

(1) 10월 12일 북부동맹군의 공세작전 개시 이후 미·영 특수작전부대는 북부동맹군과 함께 행동하면서 공지위성통신기 등을 이용하여 항공폭격전력과 연결, 탈레반군에 대한 항공정밀타격을 지원과 북부동맹군의 군수품을 제공

(2) 11월 9일 '마자르 이 샤리프' 함락 이후부터 '쿤두즈' 점령에 이르기까지 다국적 특수작전부대의 지원 하에 있는 북부동맹군에 의해 탈레반군은 무력하게 패퇴

나) 칸다하르 및 토라보라 작전('01. 12. 7 ~ 12. 16)

33) 합동참모본부 (2002), 『아프간 전쟁 종합분석』, 합참참모본부., pp44-45.

(1) 칸다하르 작전

(가) 칸다하르 지역을 최후 거점으로 저항중인 탈레반 군을 격멸하고 아프간 전 영토를 확보하기 위한 미 지상군(해병대)과 특수작전부대, 북부동맹의 연합·합동 작전

(나) '01년 11월 26일 미 해병대는 걸프해역 전함에서 MH-53J, MH-47 등의 회전익 침투자산을 이용하여 '칸다하르' 서남쪽 약 90km에 위치한 비행장을 공중강습하여 전방작전길을 확보하고, 탈레반 지휘통제 시설 등 주요시설을 점령하였으며, 중무장 병력 1,500 ~ 2,000여명을 전개함으로써 빈 라덴 색출을 위한 특수작전 수행여건을 조성

(다) '01년 12월 6일 미 해병대, 특수작전부대와 북부동맹군의 공세작전으로 '칸다하르' 지역의 탈레반 지휘부 항복

다) 토라보라 작전

(1) 칸다하르 작전 후 잘라라바드 남부 산악지대(The White Mountains)의 파키스탄 국경지대에 舊소련 점령시 구축한 동굴형 지하 병커 등에 빈 라덴을 포함한 약 1,000여명 이상의 탈레반 및 알카에다 집결에 대한 소탕작전

(2) 12월 11일 미 해병대와 육군 특수작전부대는 B-52 폭격기의 지원을 받으며 소탕작전 시행

(3) 12월 16일 대부분의 동굴을 점령하였으며, 수백명의 탈레반과 알카에다 세력은 도주하였고, 빈 라덴 체포에는 실패

라) 아나콘다 작전('02. 3. 1 ~ 3. 18)

(1) 알카에다 및 탈레반 전사 약 5,000명 이상이 아프간 동부 Shahi Kot의 산악지역(해발 8,300 ~ 11,600ft)에 재집결함에 따라 이들 잔적을 소탕하기 위한 미군, 다국적 특수작전부대, 북부동맹군의 연합·합동 작전

(2) 특수임무부대(Task Forces) 편성 : 미 10산악사단 예하에 아프간군, 미 101공정사단, 동맹국 특수작전부대(캐나다, 독일, 덴마크, 노르웨이, 뉴질랜드, 호주)로 편성되었고 작전간 미 MH-47 헬기 1대가 격추되어 미군 9명 사망, 40여명 부상을 입었으며, 탈레반 반군 450명 이상 사망함.

4. 분석 및 평가

가. 전략적 측면³⁴⁾

- 1) 북부동맹을 군사적으로 최대한 활용한 비정규전작전을 수행하여 아프간 국민의 지지를 확보하고 미군의 손실을 최소화
- 2) 상대와 목표가 불명확한 일명 ‘보이지 않는 전쟁’(Gray War)의 독특한 방식으로 전쟁을 수행함. 특히 CIA요원, 특수작전 부대 및 정밀타격 무기 및 북부동맹군 등을 화롱하여 새로운 방식으로 전쟁을 수행함으로써 특수작전 부대의 중요성이 부각됨.
- 3) 새로운 형태의 미래전 수행능력 확보를 위한 군사혁신 및 변환 노력의 효과를 재확인

가) C4ISR³⁵⁾ - 정밀타격무기 - 특수작전부대의 복합체계를 활용한 새로운 미래전 수행능력의 중요성 부각

나) 해병대, 특수작전부대 등은 분쟁지역에 신속하게 전개하여 원거리 정밀타격전력과 함께 합동작전을 효과적으로 수행

다) 미래 전략환경 변화에 대비한 특수작전 전력 양성의 중요성 부각

[표 2-1] 미 통합 특수작전사령관 의회증언(2002. 3월)

* 미 통합특수작전사령관 의회증언(2002. 3. 12)

- 인원이 장비보다 더 중요함
- 질이 량보다 중요
- 특수작전 전력은 단기간에 대량으로 양성되지 않음
- 유능한 특수작전 전력은 상황발생 이전에 양성되어야 함

출처 : 합동참모본부(2002), 『아프간 전쟁 종합분석』

나. 작전적 측면³⁶⁾

- 1) ‘보이지 않는 적’을 상대로 하는 대테러 전쟁은 D-day에 의한 대규모 공격으로는 목적달성 곤란하여 외교·경제·정보 및 특수작전부대, 정보기관

34) 합동참모본부 (2002), 전계서, pp56-58.

35) 합동참모본부 (2010), 『2012~2026 합동개념서』, 합동참모본부. p33.

C4ISR : 지휘(Command), 통제(Control), 통신(Communication), 컴퓨터(Computer) + 정보(Intelligence), 감시(Surveillance), 정찰(Reconnaissance).

36) 상계서, pp59-63.

- 의 준군사요원 등은 전쟁개시 이전부터 은밀히 작전을 개시
- 2) 원거리 공중타격전력, 특수작전 전력, 정보전력 등을 통합하는 합동작전 및 통신수단의 중요성 부각
 - 가) 감시전력, 함정탑재 순항미사일 / 항모 항공전력 / 장거리폭격기 등의 정밀타격전력, 특수작전/지상전력을 효과적으로 결합한 정밀타격으로 적의 물리적·심리적인 조기 붕괴를 촉진
 - 3) 특수작전부대 및 지상군의 투입에 의해 적의 저항을 분쇄하고 거점을 완전히 제거하는데 기여
 - 가) 특수작전부대에 의한 『거점 공격방식(Point to Point)』 채택
 - 나) 항공전력을 이용한 지상군의 신속한 기동으로 적시적인 추적 보장(코소보 전쟁시 지상전을 미고려한 공습위주의 작전으로 대량난민 발생 및 인종청소에 의한 막대한 주민 희생 초래)
 - 4) 항공전력과 특수작전부대를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지상작전 최소화
 - 가) 공중작전의 완전한 자유를 확보하여 미국이 원하는 방식대로의 작전을 수행 가능
 - 나) 특수작전부대에 의한 특수정찰로 탈레반 및 알카에다 조직의 거점을 식별하여 항공타격전력에 제공함으로써 정밀항공타격에 의한 거점을 철저히 파괴하여 게릴라전 수행을 거부
 - 5) 다국적군 작전이 중시됨에 따라 연합작전을 위한 임무수행 절차, 지휘관계, 장비의 상호운용성 문제가 중시됨
 - 가) 다국적군은 각 자·해·공군, 특수작전부대·해병대가 연합구성군사령관 지휘의 통합된 지휘체계하에서 임무수행
 - 나) 특수작전을 위해서 영국, 프랑스 등 지원국의 작전 지역을 구분하여 작전간 혼란을 최소화
 - 다) 영국 등 미국과 유사한 전력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NATO국가 중심으로 항구적 자유작전을 위한 실질적인 연합작전을 수행
 - 라) 기타 국가는 군수지원, 의료지원 등 전투군무지원과 아프간 안정화를 위한 국제안보지원군(ISAF) 역할을 주로 수행
 - 마) 상호운용성 측면에서 연합작전 수행을 위한 절차 및 전력 개선 방안

의 중요성 재확인

5) 심리전 등 정보작전의 성공적인 실시로 탈레반 정부 및 알 카에다 조직의 기반 와해에 기여

가) 인도주의적 구호작전과 병행한 심리전은 효과를 최대 발휘

(1) 미국은 '01년 10월~12월까지 100일 동안 187억 달러 상당의 식량·의약품 투하, 미국 주도의 국제기구는 127,368MT 식량 전달, 아프간 어린이를 위해 1,500\$ 이상 모금 지원

(2) 미 CIA 전단은 탈레반을 국민압제자, 종족간 갈등·원성 유도

나) 특수작전부대 지휘통제 및 지원하 북부동맹과 반 탈레반군을 최대한 이용하여 탈레반 및 빈 라덴의 심리전과 기만전술을 차단

다) 특수작전 심리전 항공기인 코만도 솔로 운용 등 첨단 심리전 수행 전력의 중요성 부각

6) 작전투입부대의 소요요구에 부합된 적시적/즉각적 수요자중심의 유연한 군수지원으로 전투력 극대화 달성

가) 아프간전 초기 특수작전 부대가 요구한 상용 레이저 거리측정 쌍안경을 48시간 이내 구매승인하여 조치, 7일 이내 구입/조달

나) 요구장비 : 상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Leica Viper 레이저 거리측정 쌍안경

(1) GPS가 장착된 동 장비에 목표물의 위도 및 경도 좌표가 표시됨으로써 표적정보를 MBITR(Multi Band Inter/Infra Team Radio)무전기를 이용해 B-52폭격기와 기타 항공기에 전달하여 정확한 표적을 유도

(2) MBITR 무전기는 기존의 7가지 구형 무전기를 대체하며 Walkie-Talkie 크기로 특수작전 요원들이 거의 모든 전투요소와의 통신용으로 사용하였으며, 아프간전에서 최초로 사용

다. 무기체계 측면³⁷⁾

1) 신종 첨단무기의 효과적 운용 및 정밀유도무기의 사용 지속 증대

가) 아프간 지형, 적의 특성을 고려한 무기체계 이용 : AC-130 (지상작

37) 합동참모본부 (2002), 전계서, pp63-65.

전 근접항공화력지원기), 지하병커 공격용 폭탄(BLU-118S) 등을 특수 작전 부대의 정밀항공유도하 운용

나) 소 전장을 감시 가능한 정보전력 통합운용 지휘, 표적제공 등 : 무인 항공기(프레데터, 글로벌호크, 새도우 600), 조기경보기(E-8C, E-3), 정찰위성(Key Hole, 라크로스)

다) 무인항공기를 정찰용뿐만 아니라 공격용으로 활용

(1) Predator에 헬파이어 미사일을 장착 시험운용(미 본토에서 조종)

(2) 전쟁 초기 대공포 밀집지역에서 전투수행하여 인명피해 최소화 및 효율적 작전수행 효과 동시 달성

라) 유·무형 정보전력이 전승 달성에 필수적인 요소임을 재입증

(1) 인공위성, 고고도 무인정찰기, Predator 중고도 무인기, 특수작전부대 등을 최대 활용

가) 군사용 감시위성뿐만 아니라 상업용 위성정보(해상도 1m)를 활용

나) 특수작전 요원과 정보요원은 레이저 거리측정 쌍안경, 레이저표적 지시기(SOFLAM, Special Operation Forces Laser Acquisition Marker)³⁸⁾, 공지위성통신무전기 등을 통해 표적정보를 제공중인 항공전력에 근실시간 제공

5. 한반도 안보에 대한 시사점³⁹⁾

가. 전략적 측면

1) 테러와 같은 새로운 비군사적·초국가적 위협의 증대에 따른 대비방향 발전 필요

가) 새로운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전략목표와 개념 정립 및 전력 준비 필요(정보자산과 특수작전부대의 능력이 중요)

나) 위기발생시 혼란을 최소화한 가운데 평시부터 지휘통제 체계가 완비된 신속대응부대 편성과 정치적·군사적 의사결정을 수행하고 집행할 수

38) 양욱 (2006), 『그림자 전사, 세계의 특수부대』, 플래넷 미디어, p32.

레이저표적지시기(SOFLAM) : 레이저유도미사일을 자동으로 유도하는 표적지시기로 위성통신장비(Satcom)과 함께 지상표적에 대한 정밀 항공화력유도장비. .

39) 합동참모본부 (2002), 전계서, pp67-71.

있는 위기관리 체계의 발전 요구

다) 국내 치안대비 차원이 아닌 『총체적인 국가재난 예방』 차원의 대비책 발전이 중요

2) 북한은 아프간 전쟁의 교훈을 토대로 『비대칭전력 확보』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대비책 강구가 중요

가)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방안

(1) 미 지하병커탄의 파괴력을 고려, 지하시설 공고화 추진

(2) 전자전 수행능력 및 대공 방어능력 보강

(3) 핵, 화생무기, 장거리미사일 등 WMD 개발 및 확보 지속 추진 전망

3) 국제적 협력을 통한 분쟁대처가 일반화됨에 따라 우방국과의 협력관계 발전과 미국주도의 국제분쟁에 동맹국으로 참여하여 국제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신속대응부대(항공기+함정+특수작전부대) 발전 중요

가) 신속대응부대로서 분쟁지역에 전개하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력 확보(동맹국과의 상호운용성 고려)

나) 이러한 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합동기동부대 편성과 부대와 인원에 대한 교육훈련 및 교리발전 긴요

나. 작전·전술적 측면

1) 아프간전 모델을 한반도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하나의 작전형태로 연구 필요

가) 한미의 압도적인 항공전력과 특수작전 전력을 결합한 전쟁수행 방식은 지상전 수행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 가능

나) 심리전을 포함한 정보작전을 통해 북한정권과 주민을 분리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강구 중요

2) 작전방법이 목표지점, 중심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형태로 발전되고 기간이 단기화되는 새로운 전쟁방식에 대한 대비 필요

가) 우세한 적에 대한 고전적 대응방책인 게릴라전, 총력전 수행방식과 기존의 밀집전투, 선형전술의 효과는 점차적으로 제한될 전망

나) 미 육군의 분산작전(중심지역의 소수 특수작전부대와 정밀타격체계의

결합)과 같은 새로운 작전·전술의 연구 및 발전이 중요

다) 지·해·공군, 특수작전부대를 포함한 정보전력의 통합적 운용효과를 최대한화할 수 있는 합동작전능력과 미군과의 연합작전 수행능력 발전 중요

3) 다국적군에 참여하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다각적인 능력구비 및 한반도 분쟁과 관련하여 다국적군 구성시에 대비한 지휘체계, 임무수행체계 등 정립 필요

다. 무기체계 측면

1) 신규첨단전력의 연구개발 능력 발전을 위한 장기 투자 필요

2) C4ISR - 정밀타격 전력의 유기적인 결합이 가능한 복합체계 능력 지속적 발전 추진

3) 신속대응부대 편성에 요구되는 첨단 항공전력(고정익, 회전익)과 특수작전 부대 무기체계 첨단화 필요

제 3 장 한국 특수작전부대 현실태 및 문제점

제 1 절 육·해·공군 특수작전부대의 현실태

1. 육군 특수작전부대

육군 특수작전부대는 6.25전쟁 당시 북한 중심지역에서 유격부대로 활동하던 대원들을 중심으로 1958년 4월 1일 현 특수전사령부의 모체인 제1전투단이 창설되었으며, 1969년 제1전투단과 2개 유격여단을 예속받아 1969년 8월 18일 특수전사령부를 창설하였다. 1970년대에는 3개 공수특전여단이 창설되었으며, 1980년대에는 교육단과 대테러특공대가 창설되었고 2010년에는 국제평화유지 활동을 담당하는 부대를 창설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⁴⁰⁾ 육군 특수전⁴¹⁾사령부는 평시에는 국내외 대테러작전 수행과 국제평화유지를 위한 해외파병활동, 대형 재해재난 발생시 신속대응부대 임무수행하고 국지전시 북한의 도발에 대비하여 다양한 형태의 국지도발대비작전을 수행하며, 전시에는 북한 중심지역에서 전략적·작전적 수준의 핵심표적에 대한 특수작전과 북한 정권과 군의 통제력 약화를 위한 비정규전작전을 수행한다. 하지만 육군 특수전사령부는 전·평시 다양한 임무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공중침투와 기동수단이 전무하여 다양한 위협에 신속한 대응에 제한이 있으며, 획일적인 예하부대의 편성으로 인해 현재 부여된 다양한 임무유형에 부합된 효율적 작전수

40) 송철 (2008), “한국의 특수전 부대구조 발전방향”, 한성대학교 국방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39.

41) 특수전(Special Warfare) 용어의 변경 : 특수전(SW) 용어 미사용 → 특수작전(Special Operations) 용어 사용

- 합동특수작전 교리 반영(‘특수작전’용어 사용, ‘특수전’ 미 사용)
 - 특전부대에서 수행하는 작전활동을 ‘특수작전’으로 기술,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부대를 ‘특수작전부대(SOF)/특수작전사령부(SOC)’변경
 - 한·미간 명칭 차이로 인한 혼동 방지(한 : 특수전, 미 : 특수작전)
- 육군 기준교범 ‘특수전’을 ‘특수작전’으로 변경(13년 발간)
- 미 국방부 군사용어사전 : 특수전(Special Warfare) 용어 미 사용, 특수작전(Special Operations) 용어 사용
- 부대명칭은 '13년 변경 추진 : 육군 특수전사령부 → 육군 특수작전사령부

행과 미래 잠재적 위협의 대응에는 많은 제한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해군 특수작전부대

해군 예하의 특수작전 부대는 최초 1954년 6월 23일 상륙전대 예하 해군 해안대를 창설하였고 1955년 11월 9일에 수중파괴대(UDT)⁴²⁾를 창설하였다. 그 이후에도 1968년 5월 1일에 폭발물처리대(EOD)⁴³⁾를 창설하였고 1976년 1월 1일에는 북한 중심지역에서의 특수작전 임무를 추가하였으며, 1998년 4월 1일에 특수전박대와 1999년 5월 1일에 대테러부대인 특수임무부대를 창설하였다. 그리고 2000년 1월 1일에는 해군 특수전여단을 창설하였으며 2007년 12월 21일부로 특수전여단을 특수전전단으로 개편하였다.⁴⁴⁾ 해군 특수전전단은 북한 중심지역의 특수작전과 대해상테러작전, 인원구조, 상륙작전 지원을 위한 부대로 구성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해군 특수전전단은 평시에는 국내·외 해상 대테러작전 수행과 국제평화유지를 위한 해외파병임무, 전시에는 북한 중심지역에서 전략적·작전적 수준의 핵심표적에 대한 특수작전을 수행 등 다양한 전·평시 임무를 수행한다. 하지만 해상 침투수단의 노후화와 첨단장비 전력화 지연으로 인해 작전팀의 생존성 보장이 제한되며, 전시 한미 연합방위체제하 지휘체계의 이원화 등으로 인해 효율적인 작전수행에 문제점이 있다.

3. 공군 특수작전부대

현 공군 예하의 특수작전 부대는 0000비행단 예하 000특수작전비행부대이다. 000특수작전비행부대는 1955년 10월 C-46수송기를 최초로 도입하여 대구에서 제0공수비행부대로 창설되었으며 1983년 4월에 00혼성비행단 예하의 제00특수작전비행부대로 개편되었고 1990년 1월에는 C-130 수송기와 2003

42) 수중파괴대(Underwater Demolition Tteam ; UDT) : 상륙작전 이전 상륙 예정 해안에 대한 특수정찰과 상륙장애물을 파괴하기 위해 특별히 훈련, 편성된 해군의 특수작전부대.

43) 폭발물처리대(Explosive Ordnance Disposal Team ; EOD) : 폭발물 처리 전문교육을 받은 요원으로 편성된 부대로서 폭발물의 설치, 제거 및 해체 등의 임무를 수행.

44) 송철(2008), 전개논문, p40.

년 5월에는 HS-748 수송기를 인수하였으며 2012년 00훈성비행단이 0000비행단으로 개칭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⁴⁵⁾ 0000비행단 예하 제000특수작전비행부대는 평시 항공기 및 선박 등의 조난시 조난자를 긴급 구조하는 탐색구조작전과 해외파병을 비롯한 해외 장거리 인원 및 물자 수송의 임무를 수행하며 육군 특수작전부대의 정기 강하와 연합합동훈련 시 항공기 지원, 전시에는 제공권이 확보된 지역에 한해 인원 및 물자 수송의 임무와 제한된 공중침투와 수송 임무를 수행한다. 하지만 전·평시 특수작전 소요대비 항공기의 보유량 부족과 항공기의 성능 제한으로 전·평시 전천후 공중침투 임무수행이 제한(현재 성능개량을 추진중⁴⁶⁾)되는 문제점이 있으며 현 특전팀의 전시 북한지역내 공중침투는 전적으로 미측 고정익과 회전익 자산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 2 절 육·해·공군 특수작전부대의 문제점

1. 미래 다양한 위협에 대응 제한

안보환경과 미래전 양상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향후 미래전 양상은 국가간 전면전보다는 국가이익을 위해 국경선, 도서 영유권 그리고 배타적 경제수역과 관련된 국지분쟁의 가능성과 테러와 같은 비군사적 위협이 증가될 전망이다. 전쟁수행방식도 적과 상이한 개념, 수단, 방법으로 적의 취약점을 공격함으로써 최소의 희생으로 최대의 효과를 달성하는 비대칭적 전쟁수행방식으로 변환될 것으로 예상된다.⁴⁷⁾ 한반도와 관련된 북한의 전면전 위협은 북한의 내·외부 사정으로 인해 가능성이 희박하고 북한의 핵위협을 포함한 국지도발

45) 송철 (2008), 전개논문, p41.

46) 특수전사령부 (2013), 『특전부대 비전 2030』. 특수전사령부 p12.

C-130 수송기 성능개량 : ① 다기능레이더(Multi Mode Radar) 보강 : 야간 초저고도 비행용 ② 전방관측 적외선장비(Forward Looking Infra-Red) : 악기상 비행용 ③ 위성통신장비(Satellite for Cummunication) 보강 : 실시간 지휘통제용 ④ 저고도 고속투하 체계(High Speed Low Level Air Delivery System) 보강 : 물자 및 장비 저고도 고속투하용 ⑤ 지향성 적외선 방해장비(Directional Infra-Red Counter Measure) : 적외선 미사일 기만용.

47) 송철 (2008), 전개논문, p42.

과 급변사태의 위협이 증가할 것이며, 주변국과의 도서영유권과 배타적 경제 수역 문제로 인한 해양 분쟁은 가까운 미래에 실질적인 위협으로 다가올 것이다. 하지만 우리군은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합동부대와 지휘구조가 미편성되어 있어 즉시적인 대응에는 제한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측면에서 'Fight Tonight' 개념은 오직 북한과의 전면전 위주의 전투력운용에 국한되어 있어 불확실한 위협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융통성 있는 신속대응부대(합동부대)의 편성이 평시부터 요구된다. 이러한 신속대응부대는 한국군 구조의 특성(합동군제⁴⁸)과 주변국과의 군사력 우위 달성이 제한되는 현실을 고려한 비대칭전력의 양성차원 그리고 국방예산의 효율적 사용차원에서 기존에 육·해·공군별로 편성되어 있는 특수작전부대를 통합하는 방안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일 것이다. 하지만 현 국방개혁 부대구조 추진분야에는 합동특수작전사령부의 편성은 누락되어 있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2. 전·평시 지휘체계의 이원화

한국군이 보유하고 있는 육·해·공군의 특수작전 부대는 평상시부터 각 군별로 편성되고 교육훈련되고 있으며, 전시 작전통제권이 유엔군사령관/연합사령관에게 있는 현 시점에서 유사시 위기관리단계에서 방어준비태세가 변경되면 연합특수전사령부(이하 연특사)가 창설되고 여기에 해군 및 공군에서 보유한 특수작전부대의 일부전력이 연특사로 작전통제 전환되어 임무를 수행하게 되며 미군 육·해·공군 특수작전부대도 시차별부대전개제원에 의해 한국전구(KTO)내로 전개되어 연특사로 편성된다. 다시말해 연특사의 한국군 특수작전부대는 평상시에는 자군의 지휘계통을 유지하고 있다가 유사시 합동으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⁴⁹ 반면 연특사의 미측 특수작전부대는 통합특수작전사령부(US SOCOM) 예하에 평시부터 통합 편성된 육·해·공군 특수작전부대 증원된다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한측 특수작전부대의 전·평시 이원화된 지휘구조는 합동성⁵⁰ 차원에

48) 합동군제 : '군정(군사행정을 말하며 군사력을 건설 / 유지 / 관리하는 양병기능)'은 각 군 참모총장이 수행하고 '군령(군 통수권의 직접작용으로, 군을 작전지휘하고 건설된 군사력을 작전운용하는 용병기능)'은 합참의장이 통합 수행

49) 송철 (2008), 전계논문, p43.

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전투준비시간의 부족이다. 특수작전 부대는 국지전 발발시 도발현장에 대한 적시적인 전투력 운용으로 상황을 조기에 종결하고 전면전으로 확전을 방지하며, 전면전시에는 개전초 전략적·작전적 핵심표적에 대한 특수작전 수행으로 물리적 파괴 최소화와 전쟁의 조기 종결에 기여하는 등 신속대응부대로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상시 지휘체계가 이원화되어 있어 계획수립의 통합 및 신속성을 완전하게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둘째, 의사소통의 제한이다. 전·평시 이원화된 지휘구조는 평상시 각종 계획을 준비하고 유사시 합동성·통합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효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휘통제체계는 평시에 각 군별 협조관계로, 전시에는 통제관계로 전환됨에 따라 상호이해와 각 군 고유의 기능을 이해하는 시간이 제한되는 등 원활한 의사소통을 보장받을 수 없다. 그리고 해군의 특수작전부대는 전시 일부작전부대를 연합특전사에 작전통제권을 이양하고 나머지 작전부대는 해군에서 직접 통제하는바, 해군 특수작전 지휘관은 한반도 전구내에서 이중으로 지휘통제를 받는 제약을 안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전·평시 지휘체계의 이원화는 특수작전 수행을 위한 전력발전의 통합을 저해하고 있다.

3. 각 군별 전력발전 추진에 따른 유사시 합동성 발휘제한

육·해·공군 특수작전 부대의 전력발전업무는 현재 각 군별로 전력화소요를 종합하여 합참으로 전력소요를 요청한다. 이후 국방부의 소요결정에 반영된 사항이 합동전략목표기획서(JSOP)⁵¹⁾에 반영되며, 중·장기 무기체계획득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현 특수작전 부대의 전력발전체계는 ‘합동성’을 근간으로 하는 특수작전부대의 특성을 고려시 비효율적인 면이 있다. 현재 각 군 특수작전부대의 전력화의 법적근거는 방위사업법 제26조 ‘표준화’와 방사청훈령 제36호 ‘군수품 조달관리규정’ 제5조의 ‘국방규격서 작성 표준지침’

50) 합동성(合同性, Jointness) : 첨단 과학기술이 동원되는 미래전쟁의 양상에 따라 총체적인 전투력의 상승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육군·해군·공군의 전력을 효과적으로 통합·발전시키는 것.

51)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JSOP ; Joint Strategic Objective Plan) : 국방목표 달성과 군사전략 수행을 위한 군사력 건설소요, 부대기획소요 및 소요의 우선순위를 제시한 문서.

의 적용으로 인해 특수작전 특성에 맞는 무기 및 비무기체계 전력화가 제한되는 실정이다. 구체적 예로 육군 특수작전부대에 필요한 전천후 공중침투(기동)용 항공기는 육군에서 직접 소요제안을 할 수 없는 실정이며, 그렇다고 해서 공군본부가 특수작전용 항공기의 소요제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공군본부의 입장에서는 차기 전투기의 전력화사업이 항상 우선순위에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Cohen-Nunn 법안⁵²⁾ <표 3-1 참조>에 의해 1999년도에 창설된 합동전력사(JFCOM ; Joint Forces Command)에서 미래의 전쟁양상·전쟁수행개념·군사과학기술 발전추세를 고려한 전력발전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합동전력사령부내 특수작전합동전력사령부(SOCJFCOM ; Special Operation Joint Forces Command)가 특전부대 특성과 합동성에 부합된 무기체계를 전력화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군 특수작전부대의 전력화사업은 유사시 합동성에 근간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각 군별로 추진중인 전력화 사업을 통합하는 기능부서가 합동참모본부내에 신설되어야 하며, 특전부대의 무기 및 비무기체계중 호환성이 필요한 장비 및 물자는 표준화하되 특수작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력화되도록 국방기획 및 획득 업무체계 관련 법과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그리고 무기체계 및 비무기체계의 세부 분류에도 특수작전 분야를 명시하도록 해야 하며 장기적으로 특전부대의 무기 및 비무기체계 예산은 별도로 배정하여 특수작전의 특성에 맞게 전력화되도록 추진해야 한다.

52) Marquis. (1998). *Unconventional Warfare : Rebuilding U.S. Special Operations Forces*. Taylor, Francis, pp144-147.

국방부의 예산 보고에 있어서 일반군의 재정과 특전부대의 재정을 별도로 구분해서 제시하는 것으로 정하여 투명성 향상.

제 4 장 미래전 양상과 한국군 특수작전부대에 요구되는 능력

제 1 절 안보정세와 위협분석

1. 안보정세

가. 세계 안보정세⁵³⁾

오늘날 세계 안보환경은 전통적인 군사적 위협이 상존하는 가운데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세계 경제위기가 장기화되면서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이러한 안보환경 속에서 세계 각국은 자체 안보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평화와 안정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는 등 상호 협력과 견제를 병행하고 있다.

1) 국제적 안보위협

냉전 종식 이후 대규모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은 감소되었으나 영토 분쟁, 자원 확보 경쟁, 종교·인종 갈등, 분리·독립 운동 같은 전통적인 갈등요소들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어 세계 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여기에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테러, 사이버 공격, 해적행위, 자연재해 등의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세계 경제위기가 장기화되면서 세계 안보 환경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중동지역은 다양한 갈등·분쟁 요인으로 인해 세계의 화약고가 되어왔다. 미국은 2011년 이라크에서 철군을 완료하고 아프가니스탄에서도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철군을 추진 중인 가운데, 알 카에다를 상대로한 ‘테러와의 전쟁’을 계속하고 있다. 한편 2010년 12월 튀니지에서 시작한 민주화 운동이 중동과 아프리카 북부지역을 휩쓸면서 국제사회의 주요 안보현안이 되고 있다. 중동지역 국가들의 민주화 과정에서 사태의 발전 여부에 따라 지역 불안정과 국제사회의 개입 사태로 연계될 가능성도 배제할

53) 국방부 (2012), 『2012 국방백서』, 국방부, pp8-12.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북한과 이란을 비롯한 일부 국가들이 핵 및 장거리 미사일을 지속 개발하면서 세계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알 카에다와 같은 테러집단이 국제 암거래 등을 통해 대량살상무기 관련 기술과 부품들을 획득할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량살상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확산 문제는 세계 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테러 위협 역시 증가하고 있다. 테러의 수단이 강력해지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테러로 인해 그 피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알카에다 등 국제테러리즘뿐만 아니라 자생적 테러도 발생하고 있다. 한편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사이버 공격의 형태와 그로 인한 피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사이버 공격은 갈수록 그 수행 주체가 조직화되고, 안보관련 기관과 국가기반정보망을 공격 대상으로 함에 따라 새로운 안보위협으로 부각되고 있다.

2) 평화와 안정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오늘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요인은 이란과 북한의 핵 및 장거리 미사일 개발, 테러,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의 정세 불안, 주요 해상교통로에서의 해적행위, 사이버 공격과 대규모 재해·재난 등이 있다. 이러한 위협은 지역, 인종, 종교, 이념 등의 요소와 결합되면서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국제사회와 국제기구의 긴밀한 협조와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이란과 북한의 핵 및 장거리 미사일 개발은 지역 안보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이란의 핵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면서 협상과 제재를 병행하고 있다. 한편 2012년 4월 북한은 핵 개발과 위성을 포함한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1718호와 1874호를 무시하고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하였다. 이에 대해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행위를 비난하는 의장성명’을 채택하였다. 핵 확산과 핵 테러의 위협이 증가하면서 2010년부터 핵안보정상회의가 개최되고 있다. 핵안보정상회의에서는 핵 테러 위협 방지뿐만 아니라 핵 물질의 불법거래 방지, 핵 물질 및 핵 관련시설 보호, 원자력 안전 등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공감대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핵안보정상회의는 2010년 미국 워싱턴 D.C.에서 최초로 개최되었으며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는

2012년 3월 서울에서 53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2차 회의에서는 핵과 방사능 테러를 막기 위하여 핵안보에 대한 국가의 책임, 국제협력의 필요성, 핵 물질의 최소화를 위한 각 국가들의 자발적 노력,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역할, 핵안보와 원자력 안전 간 상호관계 등을 규정한 「서울 코뮤니케」를 채택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소속의 국제안보지원군(ISAF)을 통해 아프가니스탄에서 현지 군대와 함께 알 카에다와 탈레반을 상대로 ‘테러와의 전쟁’을 계속하고 있다. 미국 오바마 정부는 2011년 5월 알 카에다 지도자 오사마 빈 라덴을 제거하는 등 알 카에다 세력을 약화시키는 한편, 탈레반과의 협상을 통해 평화적인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11년 6월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철군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후 주요 국제안보지원군 동맹국들도 자국 병력들의 철군 계획을 발표하는 등 2014년에 아프가니스탄 정부로의 치안 이양과 기타 지원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우리 정부도 2010년 7월부터 지방재건팀(PRT)을 파견하여 전후 재건을 지원하고 있으며, 오쉬노 부대가 기지방호와 지방재건팀의 활동을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유럽연합과 나토(NATO) 등 국제사회는 다국적 해군을 운용하여 소말리아 해역의 해적행위에 대응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2009년 3월부터 소말리아 해역에 청해부대를 파견하여 해상교통로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최근 인터넷이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이버 공격은 민간생활 영역은 물론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 특히 적국에 의한 사이버 공격은 안보에 치명적인 도전이 되고 있다. 따라서 각국은 사이버 안보전략을 수립하고 전담기구를 창설하여 대응하고 있다.

대규모 재해·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11년 3월에는 일본 동북부 지역에서 진도 9.0 규모의 대지진과 초대형 쓰나미가 발생하면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로 방사성 물질까지 누출되는 재앙이 발생하였다. 2011년 10월 태국에서는 대규모 홍수로 인해 국토의 3분의 1이 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고, 터키에서도 진도 7.3 규모의 지진으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국제사회는 이들 국가에 구조팀을 파견하고 의료품과

같은 구호물자를 지원하는 등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전개하였다.

나. 동북아 안보정세⁵⁴⁾

동북아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군사·경제적 강대국들 간에 이해관계가 교차하는 지역이다. 동북아 국가들은 역내에서의 주도적 지위와 국가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상호 협력과 견제를 병행하고 있다.

미국은 2011년 정치·경제·전략적 차원에서 ‘아·태지역을 중시하는 대외정책’을 표방하고, 한국·일본·호주·필리핀·태국 등 5대 동맹국들과의 전통적인 안보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한편, 보다 효과적인 다자안보체제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또한 한·미·일, 미·일·호 등 3자 간에 인도적지원 및 재해·재난 구호를 중심으로 안보협력을 증대시켜 나가고 있다.

중국은 상하이협력기구(SCO)⁵⁵⁾를 통해 러시아를 비롯한 인접 독립국가연합(CIS) 국가들과 안보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등 전략적 제휴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상하이협력기구는 2005년 최초로 연합훈련(‘평화사명’)을 실시한 이래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다섯 차례 연합훈련을 실시하였다. 특히 2012년에는 중·러 연합해상훈련을 실시하는 등 군사적 협력관계를 과시하였다.

한편 한·중·일 간에도 안보·경제 관련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바, 1999년부터 ASEAN+3⁵⁶⁾틀에서 한·중·일 3국 정상회의가 개최되었고, 2008년 12월 부터는 별도의 회의체를 운용하는 등 3국 정상 간의 회의체가 만들어졌다. 그리고 상호 경제교류가 증가하고 인적·물적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다. 한중 간에는 자유무역협정(FTA)을 위한 협상이 시작되었고, 한·중·일 FTA에 대한 논의도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경제협력과 상호의존도 심화는 기존 3국 간의 안보 이해관계에도 어느 정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역사 인식과 교과서 왜곡, 중·일과 일·러 사이의 도서 영유권 문제 등은 여전히 동북아의 잠재적 안

54) 국방부 (2012), 전게서, pp8-12.

55) 상게서, p.12.

상하이협력기구(SCO :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 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으로 구성된 다자협의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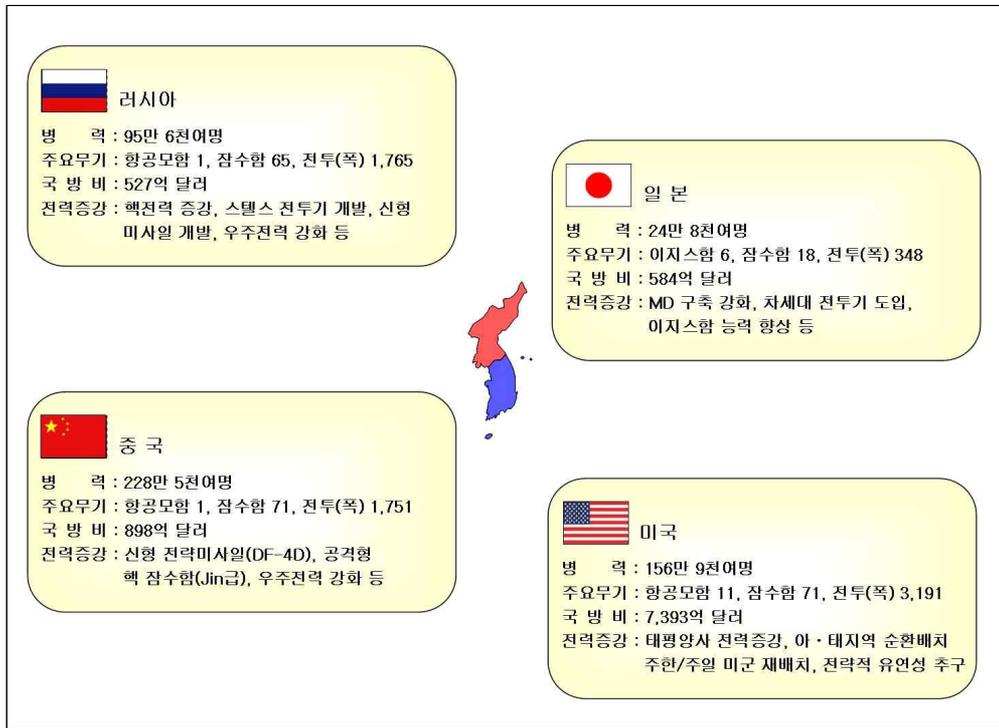
56) 국방부 (2012), 전게서, p.14.

ASEAN+3 : 1997년부터 시작된 ASEAN(현재 10개국)과 한·중·일 3국 간 상설 회의체이며, 1999년부터는 ASEAN+3와 연계하여 한·중·일 3국 간 정상회의 별도 개최.

보 불안요인이다. 이외에 배타적 경제수역(EEZ) 설정 등 해양경제선 획정 문제도 역내 국가들이 자국에 유리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잠재적 분쟁요인이 되고 있다.

동북아 지역에서는 미국이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는 가운데 중국과 일본은 경쟁적으로 해·공군력을 증강하고 있다. 미국과 러시아에 이어 중국이 제3의 우주 강대국으로 부상하면서 우주공간을 둘러싼 역내 국가들 간 경쟁도 과열되고 있다. 현재 한반도 주변 4개국의 군사력을 개관하면 <그림 3 - 1>와 같다.

[그림 3-1] 한반도 주변 4개국 군사력



출처 : 합동참모본부(2010), 『2012~2026년 합동개념서』

다. 북한 정세⁵⁷⁾

북한은 3대 권력세습 이후 체제 공고화와 내부 결속에 주력하는 가운데, 대규모 재래식 군사력 유지, 핵을 비롯한 대량살상무기의 개발과 증강, 천안함 공격·연평도 포격과 같은 지속적인 무력도발을 통해 우리 안보에 심각한 위협

57) 국방부 (2012), 전거서, pp21-24.

을 가하고 있다.

한반도 분단현상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북한의 국제적인 고립상황은 더욱 심화될 것이며, 북한은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과 병행하여 체제유지를 위한 다양한 생존전략을 구사할 것이다. 북한의 국가기본목표는 사회주의체제를 공고히 유지하면서 한반도의 공산화를 달성하는 것으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교란하고 전복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를 위해 내부적으로는 선군정치를 기반으로 군부중심의 병영국가적 통제체제를 유지한 가운데, 대외적으로는 미사일과 핵·화학·생물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를 지속적으로 개발 및 유지함으로써 체제 안전보장 및 정치적 협상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경제적 실익을 얻고자 할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체제유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체제와 북한경제 등 대내적 불안 요인과 북핵을 둘러싼 6자회담의 진전 및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대외적 요인으로 영향으로 북한 내 급변사태의 발생과 군사도발 가능성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2. 위협분석⁵⁸⁾

한반도 주변 정세를 고려했을 때 북한의 위협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며, 주변국과의 잠재적인 갈등요인으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가. 북 한

북한은 ‘한반도 적화통일’이라는 군사전략목표를 지속적으로 추구할 것이다. 이를 위해 평시부터 대남 정치·심리전으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함은 물론 다양한 형태의 국지도발을 시도할 것이다. 전면전 시에는 기습공격과 배합전을 실시하는 단기 속전속결전을 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에도 이러한 북한의 군사전략 기조에 근본적인 변화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군사·경제력 등 대내여건과 주변 정세 등을 고려할 때 위기국면을 전환하거나 체제유지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최단기간, 최소희생으로 전쟁목표를 달성하고자 할 가능성

58) 합동참모본부 (2010a), 전계서, pp27-31.

도 있다.

북한은 대규모 재래식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주요 전력의 70% 이상을 평원선 이남에 배치하여 유사시 주 전력의 재배치 없이 기습공격이 가능하다. 최근에는 전방군단에 경보병사단을 신편하고 기계화부대의 편성 및 운용개념을 조정하는 등 제1제대의 공격역량을 강화하였다. 한편 미사일, 핵 및 화생 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와 사이버전력을 계속 증강하고 있다. 2006년과 2009년 그리고 2013년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였고, 핵무기 소형화경량화를 지속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사이버전 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전문부대를 운영하고 사이버 전사를 양성하고 있으며, 사이버 무기와 전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향후에도 북한은 재래식전력의 경우 현재의 전력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부분적으로 성능을 개선하고, 비대칭전력을 지속적으로 증강시켜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나. 주변국

중국은 고도의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정보화 조건 하 국지전 승리전략’을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군 현대화를 추구하고 있다. 220만 여명에 달하는 중국군은 병력 규모면에서는 세계 최대이다.

향후 육군은 ‘지역방어형’에서 ‘전역기동형’으로 전환하기 위해 지휘구조를 단순화하면서 병력을 감축하는 대신 원거리 기동능력, 신속대응능력, 특수작전능력을 보강할 것이다. 해군은 이지스급 구축함과 신형 전략 핵잠수함, 경항공모함 및 항공모함용 전투기 개발에 주력하는 등 원양작전능력을 강화할 것이다. 공군은 신예 전투기와 공중급유기를 추가로 도입하고, 스텔스 기능을 갖춘 차세대 전투기를 배치하는 등 원거리 투사능력을 강화하는데 주안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표면적으로는 ‘전수방위(專守防衛)⁵⁹⁾’를 표방하고 있으나, 다양한 위협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방위력을 건설할 것이다. 현재 자위대는 24만 여명의 병력을 유지하면서 세계적 수준의 첨단무기를 보유하고 있

59) 공군본부 (2011), 『2011 외국 군구조 편람』, 공군본부 p60.

전수방위(專守防衛) : 무력공격을 받았을 경우 국방력을 행사, 자위권 행사를 최소한의 규모로 제한한 수동적인 방위전략.

다. 향후 일본은 원거리 투사 위주의 첨단전력을 집중 육성할 것이다. 육상자위대는 기동성과 적응성을 제고할 것이며, 해상자위대는 이지스함, 헬기 탑재 호위함, 잠수함 등을 증강할 것이다. 항공자위대는 스텔스기, 장거리 대형수송기, 공중급유기와 무인전투기 도입이 예상된다.

러시아는 예방적 선제공격까지를 포함하는 적극적 ‘신속대응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현재 러시아는 113만 여명의 병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향후 병력을 감축하면서 지휘구조를 단순화할 것이다. 육군은 신속대응능력을 제고하는 등 미래전에 부합된 부대편성과 장비의 현대화를 추구할 것이다. 해군은 전력투사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항모단, 상륙단, 전략 핵잠수함 등을 중점 육성할 것이며, 공군은 스텔스 기능을 구비한 전략폭격기 및 전투기 개발 등을 통해 원거리 작전능력과 방공능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 2 절 미래전 양상

1. 미래전 변화의 영향요인

가. 군사과학기술의 발전

정보통신기술, 우주항공기술, 나노(Nano)기술, 로봇 및 무인체계기술 등 과학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은 무기체계 뿐만 아니라 전쟁수행개념 및 방식에도 전반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

정보통신과 첨단 컴퓨터기술의 발전은 전장⁶⁰⁾의 제 요소들을 효과적으로 연결하여 소산된 위치에서도 전장상황을 공유하면서 실시간 지휘통제가 가능한 네트워크중심 작전환경⁶¹⁾ 조성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또한, 정밀유도 및 타격기술의 발전에 따라 다양한 타격수단에 의한 장거리 정밀타격이 보편화되고, 이를 정찰·감시 및 지휘통제체계와 연계한 복합정밀 타격체계(C4ISR+PGMs)⁶²⁾로 운용함으로써 승수효과⁶³⁾를 추구하는 경향이

60) 전장(戰場, Battlefield) : 전투행위가 전개되고 있는 장소로서 공중전을 위한 공중공간도 포함.

61) 네트워크중심의 작전환경 : 미래전은 기존의 플랫폼(Platform, 군사행동을 위한 능력을 갖춘 무기체계로 통상 개별적으로 표적을 탐지하고 타격할 수 있는 전자, 화포, 함정, 전투기 등을 의미) 중심의 작전환경에서 각각의 플랫폼뿐만 아니라 다양한 작전요소들이 상호 연결되어 실시간에 정보공유가 가능한 작전환경.

더욱 확산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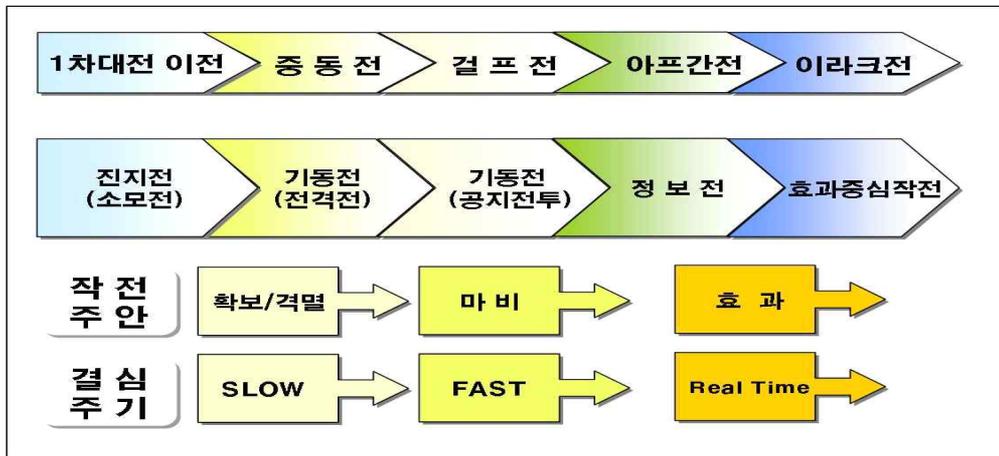
우주 및 사이버영역을 활용하는 기술의 발전은 미래 전장영역을 지상·해상·공중의 3차원 공간에서 우주 및 사이버영역⁶⁴⁾이 추가된 5차원 공간으로 확장할 것이다. 이러한 전장영역의 확장으로 우주전력 운용능력과 사이버영역에서의 주도권 장악은 전쟁의 승패에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로봇 및 무인무기체계의 발전으로 정찰·감시, 경계, 전투, 전투지원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로봇과 무인체계가 전투원을 보조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등 폭넓게 운용될 것이다.

나. 전쟁수행개념의 변화

군사분야 선진국들은 전쟁경험, 과학기술 및 무기체계 발달 등 작전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속적인 군사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전쟁수행개념을 발전시켜 왔다.

[그림 3-2] 전쟁수행개념의 변화



출처 : 합동참모본부(2010), 『2012~2026년 합동개념서』

62) 복합정밀타격체계(C4ISR+PGMs): 지휘(Command), 통제(Control), 통신(Communication), 컴퓨터(Computer) + 정보(Intelligence), 감시(Surveillance), 정찰(Reconnaissance) 및 정밀유도 무기체계(Precision Guided Munition)의 복합체계 ; 지휘, 통제, 통신, 컴퓨터, 정보, 감시, 정찰 및 정밀 유도무기로 센서에서 슈터까지 연결하는 자동화체계로 감시·정찰·정보체계와 정밀타격체계, 지휘통제체계가 실시간에 디지털로 연동되는 무기체계 또는 이와 관련된 하부체계.

63) 상승효과(Synergy Effect) : 전체적 효과에 기여하는 각 요소의 공동작용과 협동을 통해서 어떤 두 가지 이상의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나는 상승효과

64) 사이버 영역 :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 디지털정보가 교환되고 공유되는 가상영역.

걸프전에서는 공지전투(Air Land Battle) 개념을 적용한 기동전, 아프간전에서는 특수작전부대와 장거리 정밀타격전력을 결합한 정보전 개념이 대두되었다. 이라크전에서는 네트워크중심의 작전환경 속에서 대규모 공중 정밀타격과 지상전을 병행하여 적을 심리적으로 마비시켜 최단시간 내에 전쟁목적을 달성하고, 대량파괴를 최소화하면서 요망효과를 달성하는 효과중심작전(EBO) 개념이 적용되었다.

새로운 전쟁수행개념이 적용된 최근의 전쟁은 작전수행방식, 전투조직, 무기체계, 작전지속측면에서 한반도에서의 미래전 수행개념을 도출하는데 중요한 교훈을 제시하고 있다.

작전수행방식측면에서 걸프전의 공지전투(Air Land Battle) 개념에 이어, 이라크전에서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추구하는 효과중심작전(EBO)⁶⁵⁾ 개념이 어느 정도 효과를 입증하였다. 또한 인간적 요소를 중시하는 작전경향이 대두되어 작전주안이 물리적 파괴보다는 인간의 심리를 마비시키고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변화되면서 특수작전, 심리전, 공보작전⁶⁶⁾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그러나 군사작전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전후 수습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인적·물적 피해가 급증함으로써 궁극적인 전쟁목적 달성을 위해 안정화작전이 중요함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다.

전투조직측면에서는 기존의 군사적 수단을 포함하여 다국적·범정부적 제 요소의 통합운용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원거리에 소산되어 있는 부대를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동시·통합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승수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었다. 아울러 각 군의 상호협력과 합동성에 기초한 합동작전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각군의 개별적인 작전이나 전력운용보다 각 군 전력을 최적으로 조합하여 운용함으로써 승리를 달성할 수 있었다.

무기체계면에서는 비약적으로 발전한 정보통신·컴퓨터기술이 전장에 활용되어

65) 효과중심작전(Effect Based Operation) : 부여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작전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국력의 제요소(DIME)를 통합 사용하여 상대방의 행동 또는 능력에 영향을 미치거나 변화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계획·수행·평가·조정하는 작전.

66) 공보작전(Public Affairs Operations) : 전·평시 가용한 공보수단을 활용하여 작전보안을 유지하면서 군의 군사작전을 군 구성원과 군내외 대중들에게 전달하여 장병 및 국민들의 단결 도모와 우호적 여론을 조성하는 등 군사작전에 기여하는 제반활동.

네트워크 중심의 작전환경이 조성됨으로써 복합정밀타격체계(C4ISR+PGMs) 운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각 군의 동종 무기체계를 작전 효율성 측면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식의 협력을 통해 승수효과를 달성할 수 있었다.

작전지속을 위한 지원측면에서는 작전과 지원이 연계된 전쟁기획과 실시는 물론 적시·적소·적량의 효율적인 인사·군수·동원 등 통합지원체계 구축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었다. 작전계획은 지원능력을 고려하여 수립되었으며, 적정량의 전쟁물자를 사전에 확보하고, 지원능력을 고려하여 전투부대의 기동 및 작전속도를 유지하였다. 또한, 분배 및 속도중심의 지원과 보급·정비·수송이 통합된 군수 정보 및 통신체계의 구축, 지원부대의 기동화 등 효율적인 통합군수지원체계⁶⁷⁾는 전승의 요인이었다.

2. 미래전의 일반적인 양상

가. ‘효과’·‘심리적 마비’ 지향

미래전은 지형 목표를 확보하거나 물리적 파괴 위주의 전쟁보다는 적의 핵심노드 또는 중심을 타격함으로써 전쟁에서 승리를 추구하는 효과중심, 심리적 마비 위주의 전쟁수행방식이 더욱 보편화될 것이다. 반면, 최근의 전쟁양상은 전쟁에서의 최종적인 승리를 위해서는 효과와 심리적 마비를 추구함과 동시에 적부대·지휘부 등 전쟁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고 주민과 지역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나. 네트워크중심의 작전환경

미래전은 기존의 플랫폼(Platform) 중심의 작전환경에서 각각의 플랫폼뿐만 아니라 다양한 작전요소들이 상호 연결되어 실시간에 정보공유가 가능한 네트워크중심의 작전환경으로 변화될 것이다. 이러한 작전환경에는 복합정밀타격체계 운용이 보편화되고, 모든 합동작전 요소들이 소산된 위치에서도 단일한 효과 또는 작전목적 달성을 위해 동시·통합적으로 운용되는 것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67) 통합군수지원체계(Integrated Logistic Support System) : 합동, 공통 또는 상호지원 단일 기관이나 군에 의하여 2개 또는 그 이상의 군 또는 구성부대에 대하여 군수지원을 제공하는 체계.

다. 지식·정보기반의 작전

미래의 군사작전에서는 ‘기동과 화력’이라는 기존개념의 전투력도 중요하지만 ‘지식·정보’의 우위달성이 더욱 강조될 것이다. 지식·정보우위를 확보하여 상대방의 취약점에 효과적으로 전투력을 집중함으로써 아군이 요망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상대적 전투력 우위를 달성하고, 주도권 장악이 가능할 것이다.

라. ‘인간적 요소’를 중시하는 작전

대량살상과 파괴를 수반하는 전쟁은 여론의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최소희생으로 전쟁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비살상무기 사용과 심리전·전자전·공보작전을 확대하는 등 인명을 중시하고 인간의 심리를 지향하는 작전수행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3. 한반도에서의 미래전 양상

한반도에서의 미래전 양상은 합동작전 환경 및 미래전 변화의 영향요인 등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이 전망되어 진다.

한반도에서의 미래전은 재래식전쟁과 첨단전쟁이 병행될 것이다.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밀집된 대규모의 피·아 전투력은 상대방의 병력 및 부대를 지향한 치열한 근접전투를 수행할 것이다. 비대칭전력을 활용하여 군사 및 국가기반시설을 무력화하고 혼란을 조성하려 할 것이다. 한반도 지형 특성상 산악지역 및 도시지역작전을 위한 지상군의 역할과 특수작전의 중요성이 증대할 것이며, 정보우위 달성을 위한 정보전과 전략·작전적 중심에 대한 대규모 정밀 타격작전을 수행하는 전쟁양상이 될 것이다.

또한, 초전에는 여건조성이 제한된 상태에서 강력한 적과 교전이 불가피할 것이다. 남·북한이 군사분계선을 연하는 완충공간 없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군은 주전력의 재배치 없이 즉각 공격이 가능한 반면 아군은 선제공격이 대단히 제한된다.

다차원영역에서 비선형전장⁶⁸⁾이 형성될 것이다. 군사과학기술의 발달로 전장

68) 합동참모본부 (2010), 전계서, p162.

비선형전장 : 피·아 화기의 사거리, 명중률 및 파괴력의 증대, 정보 및 지휘통제능력의 발전 등으로 전장중심이 확대되고, 전·후방 동시적 전투가 실시됨에 따라서 일정한 전선 없는 전장.

공간이 지상·해상·공중영역에 추가하여 우주 및 사이버영역으로 확대될 것이다. 사이버영역에서 다양한 형태의 사이버전을 전개하여 상대방의 전쟁의지와 군사작전 수행능력을 약화시키려 할 것이다. 또한 대량살상무기·특수전·잠수함 등 비대칭전력을 활용하여 전·후방 동시전장화를 추구함에 따라 비선형의 전장에서 작전이 전개될 것이다.

피·아 사활을 건 국가총력전이 될 것이다. 민·관·군 통합전력, 동맹 및 지원전력을 포함한 국가 총체적 역량을 운용하고, 첨단무기와 재래식전력, 비살상무기와 살상무기, 대칭전력과 비대칭전력이 High-Low Mix 개념⁶⁹⁾에 따라 상호보완적으로 운용될 것이다.

군사과학기술 발달, 군사 선진국의 전쟁수행개념의 변화 등을 고려할 때 네트워크중심 작전환경 하에서 효과중심작전, 동시·통합작전으로 수행될 것이다. 네트워크기술의 발달로 제 전장요소들이 연결되어 전장상황 공유가 가능하고, 각 체계 간의 상호 연동이 가능하여 네트워크 중심의 작전환경이 구축될 것이다. 이러한 네트워크 중심 작전환경 하에서 각 군의 특성을 최대한 발휘하는 가운데 합동성과 상호운용성을 극대화하는 동시·통합작전의 형태로 전쟁이 수행되고, 궁극적으로는 최소희생, 최소비용으로 최단기간 내 결정적 승리를 추구하는 효과중심의 작전이 수행될 것이다.

또한 미래에는 테러, 사이버 공격, 국제범죄 등 비군사적 위협이 더욱 커질 것이다. 비군사적 위협은 사전 경고가 제한되고 소규모 전력으로 불특정 다수에 대해 위협을 가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심각한 사회혼란을 유발하고 정부의 통제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비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 주도로 국가적 차원에서 제능력과 활동을 통합하여 대처할 것이며, 군은 신속 대응부대를 편성 및 운용하여 적시적인 지원활동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69) 합동참모본부 (2010), 전계서, p151.

High-Low MIX 개념 : 장비 배치와 전력운용에 있어서 고성능 무기체계와 저성능 무기체계를 결합시키는 것과 그러한 구상.

제 3 절 특수작전부대에 요구되는 능력

2015년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우리군은 많은 기회와 도전을 대내·외적으로 맞고 있다. 개혁과 개방은 한 나라의 국익과 관련해 피할 수 없는 대세이자 시대흐름이라 이를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군은 현재의 북한위협과 미래의 불확실한 잠재적 위협 및 비군사적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노력이 제도개혁 차원이 아니라 실질적인 양병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합참에서는 2015년 전작권 전환과 관련하여 우리군 주도의 전쟁지도를 위해 합동성 강화 차원에서 많은 개혁과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현재 우리군은 과연 육·해·공군과 특수작전부대의 합동성 강화를 위해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모든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대처방안은 자원 한정으로 제한되겠지만 한반도 주변환경을 고려했을 때, 현재 북한의 위협환경 변화와 일본·중국·러시아 등과의 도서 및 자원분쟁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에 필요한 지휘구조 및 부대가 평상시에 운용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미래 실질적인 위협에 융통성 있게 대비하기 위한 육·해·공군 특수작전부대의 통합형 부대편성/운용방안과 이를 위한 지휘구조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미 통합특수작전사령부의 창설과정과 세계 특수작전 부대의 현황과 현대화 추진 사례 등을 소개하고, 미래전 양상 변화에 부합된 한국군 특전부대에 요구되는 능력을 전투발전 7대 분야로 요약하여 제시하였다.

1. 미 통합특수작전사령부 창설 배경

美 통합특수작전사령부(US SOCOM)의 창설 배경은 이란 주재 美 대사관 인질구출작전⁷⁰⁾의 실패와 교훈에서 기인하였다.

'79년 11월 4일 이란의 대학생들이 주축이 된 과격파에 의해 테헤란 주재 美 대사관을 점거하고 63명의 미국인을 인질로 잡았다.

70) 양욱 (2009), 전개서, pp195-208.

[그림 3-3] 이란 인질 구출작전 당시 사진자료



출처 : 양욱(2009), 『그림자 전사, 세계의 특수부대』

이에 지미 카터 美 대통령은 인질사태를 해결하고자 결심하였고, 합참을 포함한 각 군 지휘부에서 군사적 구출작전의 가능성을 검토하여 '79년 11월 17일자로 4군을 아우르는 합동구출부대의 발족을 명하였다. 준비과정을 거쳐 '80년 4월 24일 이란의 美 대사관에 억류된 63명의 인질 구출작전(작전명: Operation Eagle's Claw)이 개시되었다. 당시 작전부대는 해군의 니미츠 항공모함과 전투 호위기, 공군의 MC-130, AC-130, C-141, EC-130 급유기 및 전투통제반(CCT), 해병대의 RH-53D 헬기 8대, 육군의 델타포스와 레인저, 이란내에서 활동하는 CIA 정보요원을 통합하여 합동으로 편조하였다.

[그림 3-4] 이집트 와디타나 공군기지에서 C-141에 탑승하는 델타포스 / RH-53D



출처 : 양욱(2009), 『그림자 전사, 세계의 특수부대』

그러나 작전실시간 초기부터 모래바람에 의한 RH-53D 헬기의 불시착과 기관고장으로 차질이 발생하였다. 테헤란 외곽 1차 집결지에서는 미 특수작전부대가 민간버스 승객들에게 노출되어 44명의 이란인을 불가피하게 억류하게 되었다. 또한 추가적인 헬기 고장으로 남아있는 RH-53D 헬기 5대로는 인질을 구출하더라도 수송할 헬기가 부족한 상황에 봉착되자 작전을 취소하

고 복귀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더욱 결정적인 실패는 작전을 포기한 이후에 일어났다. 갑작스러운 모래바람 속에서 귀환을 위해 서두르던 해병대 헬기 1대가 서서히 이동중이던 EC-130 급유기에 충돌한 것이다. 두 기체의 충돌과 폭발로 인해 작전은 그야말로 엉망진창이 되어버렸다. 미군 지휘부는 헬기를 모두 파괴하고 수송기로 탈출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화재와 부상자의 아비규환 속에서 현장의 대원들에게 이 명령은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다. 대원들은 흔적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한 채 현장에서 철수했다.

[그림 3-5] RH-53D 헬기와 EC-130급유기 충돌후 잔해



출처 : 양욱(2009), 『그림자 전사, 세계의 특수부대』

백악관은 다음날 새벽 1시에 구출작전의 실패를 발표했다. 이란 혁명정부는 제2의 구출 시도를 막기 위해 대사관 인질들을 이란 전국으로 분산시켰다. 이란 당국의 조사 결과, 미국인 8명과 이란인 1명 등 총 9구의 시체가 현장에서 발견되었다. 인질로 붙잡혀 있던 44명의 이란 민간인들로부터 증원도 녹취했다.

한편 ‘크레더블 스포츠’ 작전이란 이름으로 제2의 구출작전도 계획되었지만, 결국 실행되지 못했다. 이 작전은 믿음직스럽지 못한 헬기 대신 아주 새로운 항공기를 사용하려고 했었다. 로켓 추진 장치를 장착하여 단거리 이착륙이 가능하도록 허큘러스 수송기 3대를 비밀리에 개조했으나, 1980년 10월 29일 시험비행에 실패하면서 작전은 완전히 취소되었다.

결국 카터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고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취임하던 1981년 1월 20일에야 이란에 억류된 미국인 인질들은 전원 석방되었다. 이로써 인질들은 무려 444일 동안의 억류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인질구출작전의 실패는 미군에게 여러 가지 개선점을 던져주었다. 이것을 계기

로 미 육군은 저고도 침투비행 능력의 부재에 대한 나름의 대안을 내놓아 ‘제 160특수작전항공단(Night Stalker)’를 창설하게 되었다. 또한 장거리 침투 능력을 갖춘 항공기에 대한 수요도 높아졌으며, 궁극적으로는 틸트로터(Tilt-rotor) 항공기(MV-22 Osprey)에 대한 수요가 긍정적으로 검토되기도 했다.

무엇보다도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가 공조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새로운 통합 군조직을 창설하는 도화선이 되었다. 수많은 정치적 비난과 음로론 속에서도 미 상원 군사위원회는 통합 군조직의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로써 미 상원은 미군 내의 모든 특수작전을 총괄하고 실질적인 지휘권과 작전통제권을 가지 통합 특수작전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는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

당시 군사전문가로 불려도 손색이 없을 2명의 상원의원(Sam Nunn 의원과 William Cohen 의원. Cohen 의원은 이후 클린턴 행정부 시절 국방장관을 역임)이 발언한 Cohen-Nunn 법안에 따라 1987년 미군 통합특수작전사령부가(US SOCOM, United States Special Operation Command) 창설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표 3-1] Cohen-Nunn 법안內 특수작전부대 관련 주요 내용

- ① US SOCOM (미 통합 특수작전사령부)의 설립 근거 명시
 - 美 통합특수작전사령부의 설립을 허가
 - 4성 장군(육·해·공군, 해병대)이 지휘
 - 국방부 장관의 추가 지시가 없으면, 미국에 주둔중인 모든 예비역 및 현역 특수작전 병력은 美 통합특수작전사령관이 지휘함.
- ② 법률 최초로 특수작전의 요소를 정립하여 포괄적으로 명시
 - Direct action(타격 작전)
 - Strategic Reconnaissance(전략적 차원의 특수정찰)
 - Unconventional Warfare(비정규전)
 - Psychological Operations(심리작전) → 現 군사정보지원작전(MISO)
 - Civil Affairs(민사 활동)
 - Foreign Internal Defense(외국의 내부방어)
 - Counter-Terrorism(대테러)
 - Humanitarian Assistance(인도주의적 지원)
 - Theater Search and Rescue(전구작전차원의 탐색 및 구조)
- ③ 국방부의 예산 보고에 있어서 일반군의 재정과 특전부대의 재정을 별도로 구분해서 제시하는 것으로 정하여 투명성 향상

출처 : 특전사(2013), 『특전부대 비전 2030』

세계 최강의 대군이 헬기 1대 때문에 작전에 실패했다는 점은 특수작전에 있어서 합동성이 왜 중요한지 다시 한번 절감하게 해주는 대목이다. 무엇보다도 커다란 실패의 비극이 미래의 승리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분석하는 미국의 태도는 우리가 배울 만한 자세다. 아프가니스탄 인질사건과 연평도 포격도발을 겪은 우리는 그로부터 어떤 교훈을 배웠을까 자문해 보며, 현 시점은 북한의 위협과 주변국의 잠재적 위협에 대응가능한 신속대응부대로 합동 특수작전사령부의 창설이 검토되어야 할 시기임을 강조하고 싶다. 또한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상 주변 4강(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과 상대적인 비교 시 군사력 강국이 되기에는 다소 어려운 면을 고려시 비대칭전력으로서의 합동특수작전사령부 창설은 현 국방개혁 추진과 연계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2. 세계 특수작전부대 현황 및 주변국의 현대화 추진

가. 세계 주요국의 특수작전부대 현황

1) 미 국

구 분		임 무	편성 (현역)	
미 국	합 동 특수작전 사 령 부	델타포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외 전략적 핵심표적에 대한 특수작전, 대테러작전 	3개 대대 (300여명)
		데브그루 (SEAL-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대테러작전 지원 	175명
	육 군 특수작전 사 령 부	특전단 (그린베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정찰, 비정규전, 타격, 대테러, 외국내부방어 • 동맹국 및 우방국과 연합특수작전 	5개 특전단 (9,500명)
		75유격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략·고가치 표적 타격 및 확보 • 비행장 점령 및 확보 	1개 특임대대 3개 유격대대 (1,700명)
		민사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국내 민사작전 	5개 민사대대
		심리작전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국내 심리작전 	6개 심리작전대대
		160항공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침투 및 복귀, 재보급 • 탐색 및 구조작전 	4개 항공대대
		화학정찰 과 건 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국내 화학정찰 	2개 파견대
	해 군 특수전 사령부	특수전전단 (SEAL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정찰, 비정규전, 타격, 해상대테러, 외국내부방어 • 동맹국 및 우방국과 연합특수작전 	4개 특수전전단 (2,000여명)
	공 군 특수작전 사 령 부	특수작전 비 행 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세계 특수작전 공중자산 제공 • 공중화력 / 심리작전 	4개 비행단 (1, 27, 193, 919)
		특수작전 비 행 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국 육해공군 특수작전 부대 연합 및 합동훈련 지원 	2개 비행대 (352, 353)
		특수전술 비행대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상정보, 항공지원 	1개(720) 전술비행대대
	해 병 대 특수작전 사 령 부	해 병 특수작전 연 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정찰, 비정규전, 타격, 해상대테러, 외국내부방어 • 동맹국 및 우방국과 해상 특수작전 지원 	3개 대대 특수작전 지원단

2) 기타 국가

구 분	임 무	창 설	편성(인원)	비 고	
영 국	공수특전단 (SAS)	대테러 / 대게릴라전	'41년 창설 '45년 해체 '52년 재창설	3개연대 (현역 1, 예비역 2) *연대별 600여명	IRA소탕('60년대) 이란대사관 인질구출('80년) 포클랜드전('82년)
	코만도	상륙전, 공중기동전	'40년	3여단, 45독립여단 * 4천여명	2차대전
	특수주정대 (SBS)	상륙전, 공중기동전	-	200여명	포클랜드전('82년)
	산악극지부대	산악/혹한지 특수작전	'81년	-	포클랜드전('82년)
	쿠르카 부대	경보병부대	-	3개대대 (네팔 쿠르카족)	-
호 주	SAS	특공, 특수정찰	-	1개연대 (500여명)	아프간전('01년)
프랑스	외인부대	대테러외 다가능	1830년	9개연대 (8,500명)	알제리반란('60) 걸프전('91)
	공수부대	해외 투사	-	11공수사단 *13,000명	-
	헌병특공대 (GIGN)	대테러부대	'74년	300여명	-
독 일	제9국경지격단 (GSG-9)	대테러부대	'72년	110명	소말리아 모가디슈 대테러작전('77년)
	잠수공작대 (KSK)	기뢰제거, 침투	'59	250명	-
이태리	콰수빈	수중특공대	-	200여명	-
이스라엘	공수부대	특수작전	-	-	-
	골라니여단	산악 특수작전	-	-	-
	사이렛메트칼	전략정찰 대테러	-	-	-
	사이렛 13	전략정찰 대테러	-	100여명 미만	-
러시아	알파팀	대테러(경찰)	'94년	250명	-
	스페츠나즈	전략정찰	'60년 중반	6개여단 (1만여명)	아프간침공('79년)
	자스론	해외특수공작	'98년	300여명	-

나. 주변국의 현대화 추진

1) 미 국

특수작전 부대의 현대화와 전력증강에 관련된 구체화된 내용은 비밀로 분류되어 확인이 제한되나, 2008년 3월 7일 미 의회 군사위원회에서 증언한 당시 미 통합특수작전사령관인 해군 윌슨 제독의 말을 인용하면 “미국의 특수작전부대가 세계 58개국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전 세계 대테러전 활동을 위해 향후 부대 규모를 매년 3~5% 비율로 확대할 것.”이라고 증언⁷¹⁾한바 있으며, 아프간전과 이라크전을 통해 원거리 공중타격전력과 항모전력, 정보전력, 유관기관 등과 특수작전부대를 통합하는 합동작전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던 점, 그리고 아프간과 이라크전에서 미국에 적대적 정권과 세력에 저항하는 현지 친미 성향의 저항세력 규합과 이들을 활용한 효과적인 전쟁수행 성공사례 등을 고려시 향후 미 특수작전부대의 전력증강과 부대규모의 확장은 합동성 강화차원에서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 일 본

일본은 자위대 방위태세 강화 및 군사력 증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중앙즉응집단’을 신설하여 재해 및 해외파견을 5일 이내 신속히 전개가 가능토록 편성을 완료하였으며 특히, 북한의 군사도발 및 중국 해군의 활동이 강화되고 있는 동북아 안보상황을 고려 일본 남서제도 방위력 강화를 위한 특수작전부대⁷²⁾ 창설을 검토하고 있다. 특수작전부대 규모는 육자대 중심의 사단 또는 여단급 규모로 판단하고 있으며, 부대편성은 전략적 특수정찰 및 타격작전이 가능한 특수작전부대와 고속수송함과 대형수송기 전력을 통합한 합동특수작전부대로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조직 신설 불가시에는 ‘중앙즉응집단’⁷³⁾ 또는 ‘서부방면대’⁷⁴⁾를 재편하는 방안도 병행 검토하고 있다.

71) http://www.jcs.mil/workdata/viewCont/?contentID=5187&bid=information_for_d_005&page=13#data (검색일자 : 2013. 4. 8)

72) 국방정보본부 (2011), 『국제 및 주변국 동향』, 국방부 p14.

73) 2004년에 창설을 결정한 ‘즉응집단’은 2007년 3월 31일 일본 도쿄 북부의 자위대 아사카 기지에 육상자위대의 공수부대와 특수전부대 병력 등 약 3,200명 규모로 창설되었다. ‘중앙즉응집단’은 공수부대와 함께 대테러·대게릴라 부대, 해외파병 지원부대, 화생방(NBC) 방호 부대 등이 총망라돼 있어 각종 긴급사태에 모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밀리터리 포커스 - 국방일보, 2007. 4. 5)

74) 서부방면대(西部方面隊) : 육상자위대의 방면대(군단급 규모)로, 규슈, 오키나와 현을 방위한다. 예하에 2개 사단, 1개 여단이 있으며 24개 주둔지, 8개 분둔지, 8개 지방협력 본부가

3) 중 국

중국의 군사전략⁷⁵⁾은 걸프전('91년)고 코소보전('99년)을 계기로 첨단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한 가운데, 전면전쟁 대비 전략에서 국지전 발발 가능성 대비 전략으로 전환하고, 중심방어 전략에서 방어와 공격을 동시 수행하는 적극방어 전략으로 전환하였다. 적극방어 전략이란 국경 및 대륙 중심의 방어 전략에서 해·공군의 장거리 투사 능력증대를 통한 인도양, 말라카해협, 동남중국해까지 방위범위 확대의 개념을 담고 있으며, 이중 신속대응전략은 장비 현대화 및 신속반응부대 창설을 통해 국지전/핵전/ 화학전/원양 무력충돌에 대비한다는 전략을 기초로 국지전 발생 후 최단시간내에 약 6만~8만명의 신속대응군을 파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 현대화된 특수작전부대를 포함한 군 구조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에서 쾌속반응부대⁷⁶⁾(快速反應部隊), 일명 쾌반부대로 부르는 신속대응부대는 기동력 부족을 보완하는 핵심수단이 되고 있다. 어차피 모든 부대의 기동력을 강화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 특정한 육군 부대를 쾌반부대로 지정, 장비 지급에 우선순위를 두는 등 전력을 강화해 유사시 국지 전쟁에 대응하는 핵심부대로 삼겠다는 것이다. 현재 집단군 중에서 38군·39군, 사단 단위에서는 63사·149사·162사단 등 상당수의 부대들이 쾌반부대로 지정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3. 한국군 특수작전부대에 요구되는 능력

특전부대의 역할은 전·평시 국가방위 핵심전력으로 국가·군사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것이다. 평시에는 북한 및 잠재적 위협 국가와의 국지전이나 전면전이 발생 되지 않도록 하는 억제작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국가 정책에 따라 실시하는 평화작전, 대테러, 재난대비 등 다양한 비군사적 위협에 대비한 정부 및 민간 지원작전 등 평시 합동작전의 작전적 목표 달성을 위한 특수작전을 수행한다. 국지전시에는 북한 도발과 잠재적

설치되어 있다. <http://ko.m.wikipedia.org> (검색일자 2013. 5. 8)

75) 국방정보본부 (2009), 『2008 중국 국방백서』, 국방부, pp6-9.

76) <http://m.blog.daum.net/bog/m/articleView.do?blogid+08iDP&articleno+15860931>
(검색일자 : 2013. 6. 11)

위협국가와의 분쟁시 전략적 신속대응부대로써 적 핵심전력에 대한 특수작전을 수행하여 최단기간내에 원상회복과 전면전으로의 확산 방지에 기여해야 하며, 전면전시에는 전쟁 조기종결과 통일여건 조성을 위해 적 후방 중심지역에 침투하여 전략적·작전적 핵심표적에 대한 독자적·공세적 특수작전을 수행하여 지상군 및 해·공군의 중점작전을 지원하고, 안정화작전 단계에서는 북한 자유화지역에 대한 안정화작전 지원과 간접진압작전 수행을 통해 한반도 통일여건 조성에 기여해야 한다. 이러한 특전부대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능력을 구비해야 한다. 능력 구비는 전투발전 7대 분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가. 구조 및 편성

합동성은 ‘첨단 과학기술이 동원되는 미래전쟁의 양상에 따라 총체적인 전투력의 상승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육·해·공군의 전력을 효과적으로 통합·발전시킨 것’으로 합동작전의 기본개념인 ‘효과중심의 동시·통합작전’ 구현을 합동작전 환경에 적합한 부대구조로 발전시켜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특수작전부대의 편성 및 구조로는 미래 군사과학기술의 발달과 전쟁수행개념의 변화, 북한 급변사태 등 복합적 안보위협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응에는 제한이 있다. 외국군의 경우 특수작전의 합동성을 위해 미군은 통합특수작전사령부(US SOCCOM)로 통합하였으며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도 합동특수작전사령부로 편성하여 독자적인 작전수행능력을 구비하고 있다. 따라서, 물리적 파괴를 최소화하고 적 중심 정밀타격 등 효과중심의 전쟁수행에 적합한 전략적 유연성을 갖춘 첨단화된 특수작전부대를 통합하여 합동특수작전부대로 편성함으로써 신속한 의사결정과 효율적인 지휘통제를 통해 다양한 위협에서도 신속한 대응으로 전·평시 군사전략 목표 달성이 가능하고, 신 연합방위체계 구축에도 부합된 합동부대구조로 전환해야 한다.

나. 정보 / 정보화

적 후방 중심지역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특수작전부대가 수집한 정보는 실시간에 보고 및 공유되어 전구작전 차원에서 전략적·작전적 목표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기여하게 된다. 이를 위해 先見, 先決, 先打를 위한 지식·정

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첨단 지휘통제·통신체계 구축을 통한 네트워크 작전 환경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다. 무기·장비·물자

무기·장비·물자 분야는 유형적 군사력의 핵심요소로서 합동작전 수행을 위해 상호운용성이 보장된 구현 수단을 확보해야 한다. 특히, 특수작전부대는 적 후방의 중심지역으로 독자적 원거리 정밀침투 가능한 해상·공중침투 수단과 다양한 우발침투수단(축전지를 활용한 무소음 동력 PG⁷⁷⁾, 그리폰 등)을 병행 확보하고, 공세적 특수작전 수행과 첩보수집을 위해 나노(NANO)⁷⁸⁾기술 등 신개념 과학기술을 적용한 초경량·다기능·고효율의 무기·장비·물자체계 보강으로 작전수행능력을 극대화하며, 육·해·공군 특수작전부대 간 무기·장비·물자의 상호운용성과 연동성을 구축해야 한다.

라. 교 리

육·해·공군 특수작전부대가 통합전투력으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현존 및 미래 특수작전 개념 구현을 위한 합동특수작전 교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특히, 육·해·공군 합동으로 합동특수작전 교리연구가 가능하도록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특수작전부대 특성에 맞게 시뮬레이션 기법을 적용한 과학화된 특수작전 전투실험체계⁷⁹⁾를 구축하여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검증을 통해 전투발전소요를 도출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야 한다.

마. 인적자원

특수작전은 그 임무와 특성상 전문성을 구비한 간부들을 육성 및 확보하

77) 특수전사령부 (2013), 전개서, p23.

축전지를 활용한 무소음 동력 PG : 현재 동력 PG(Paragliding)의 연료(가솔린)를 활용한 동력엔진에서 마그네슘(Mg)와 소금물(NaCl + H₂O)을 활용한 축전지형 동력 PG로, 장거리 공중침투 시 소음의 최소화된 경량화된 동력 PG 개발 추진.

78) 상계서, p23.

나노(NANO)기술 : 10억분의 1 수준의 정밀도를 요구하는 극미세가공 과학기술로 이를 고립무원의 적지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특전부대의 무기·장비·물자에 적용하여 성능개량 및 효율성 극대화에 활용.

79) 상계서, p24.

시뮬레이션 기법을 적용한 과학화된 특수작전 전투실험체계 : 특수작전부대가 적 후방지역 중심에서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것을 고려하여 실제 적 상황, 지형 및 기상, 특전부대 능력 등을 D/B로 입력시킨 가운데 다양한 특수작전을 시뮬레이션 기법을 적용하여 전투실험을 실시하고, 이를 분석 / 검증함으로써 전투발전(교리, 무기체계, 교육훈련 등) 소요를 도출하여 발전시키고, 검증결과를 토대로 작전계획을 보완하는 등 특전부대 특성에 부합된 과학적인 분석체계.

여 특수작전 수행여건을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 특전병과 창설, 특전부사관 모병체계를 확대하고, 우수 인적자원 획득 / 관리, 합동특수작전 전문가 확보와 합동특수작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내·외 연수 및 교류를 확대해야 한다.

바. 교육훈련

합동특수작전부대에 적합한 전문화되고 다양한 특수작전 교육훈련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존 특전중대(팀)급 훈련에서 벗어나 특전대대급 부대의 실전적인 쌍방훈련이 가능한 과학화 훈련장을 신축하여 비정규전작전, 중요지역 통제 및 확보, 안정화작전 등 특수작전 유형별 훈련에 적합한 전문훈련장을 확보해야 한다.

사. 시설

특수작전부대의 신설은 연합 및 합동특수작전 수행여건을 보장하는 C4I 체계를 구축하여 전투임무 위주의 첨단화된 지휘통제 및 지원시설을 확보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수혜자 중심의 종합복지시설로 신축한다.

제 5 장 한국 특수작전부대 발전방향

제 1 절 합동특수작전사령부 창설의 필요성

미래 특전부대의 역할과 임무는 전·평시 국가방위의 핵심전력으로 국가·군사 전략 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것이다. 평시에는 북한 및 잠재적 위협국가와의 국지전이나 전면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억제작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국가정책에 따라 실시하는 평화작전, 대테러와 재난대비 등 다양한 비군사적 위협에 대응하는 정부 및 민간 지원작전 등 평시 합동작전의 작전적 목표달성을 위한 특수작전을 수행한다. 국지전시에는 북한 도발과 잠재적 위협국가와의 분쟁시 전략적 신속대응부대로써 적 핵심전력에 대한 특수작전을 수행하여 최단기간내에 원상회복과 전면전으로의 확산 방지에 기여하며, 전면전시에는 전쟁 조기종결과 통일여건 조성을 위해 적 후방 중심지역에 침투하여 전략적·작전적 핵심표적에 대한 독자적·공세적 특수작전을 수행하여 지상군 및 해·공군과 해병대의 중점작전을 지원하고, 북한 자유화지역에 대한 안정화작전⁸⁰⁾ 단계에서는 잔적진압과 기타지원 활동으로 전구 작전목표달성을 촉진하는 등 전·평시 다양한 수준과 형태의 특수작전을 수행할 것이다. 하지만 현 한국군 특수작전부대의 현실은 평시에는 각 군별 특수작전부대를 보유하고 있다가 유사시인 위기관리 단계의 특정시기가 되면 육군 특수전사령부로 작전통제 전환되어지는 지휘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전·평시 이원화된 지휘구조는 합동성 차원에서 평시 전투준비시간의 부족으로 인하여 계획수립의 통합 및 신속성을 완전하게 보장받을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으며, 평시 각 군별 독립된 상태에서 의사소통의 제한으로 인하여 유사시 신속하고 완전한 부대통합과 그에 따른 원활한 작전운용을 보장받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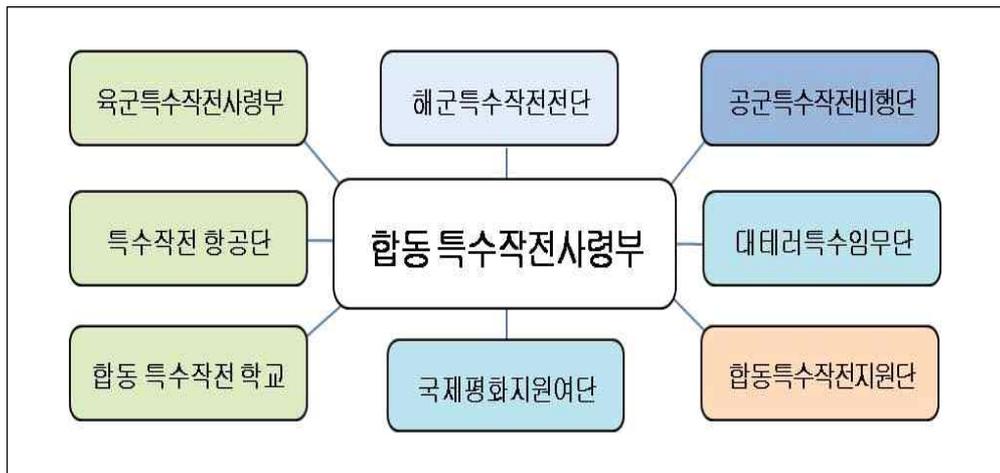
주요 외국군의 특수작전 부대구조를 살펴보면 미국은 통합 특수작전사령부

80) 합동참모본부 (2010), 전계서, p214.

안정화작전(Stability Operations ; SO) : 전시 자유화지역에서 치안질서를 유지하며, 정부의 통치질서를 확립할때까지 수행하는 군, 정부 및 민간분야의 제반 작전활동.

예하에 육군·해군·공군 특수작전사령부와 합동특수작전사령부를 두고 있으며, 일본은 2007년 3월 31일에 ‘중앙즉응집단’을 창설하여 예하에 사령부, 공정단, 긴급즉응연대, 특수작전단, 헬기단, 화학방호단, 국제활동교육대 등을 편성하였고 최근에는 일본 남서제도의 방위력 강화를 위한 합동특수작전부대의 창설을 검토⁸¹⁾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⁸²⁾에는 통상적인 육·해·공군의 각 군 및 제대별 개념을 탈피하여 합동전력으로 구성된 증강된 사단급 규모의 개입군, 안정화군, 지원군의 전력을 잠정 편성하였으며, 그 중 특수작전사령부는 해외 파병사령부, 합동지원사령부, 합동청 등과 함께 합동지원군으로 구성되어 있고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도 합동특수작전사령부를 편성하여 독자적인 작전 수행능력을 구비하는 등 미래 특수작전부대의 구조는 평시부터 신속대응군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합동부대구조로 구성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 한국군도 미래전의 양상을 고려하고 현존의 위협인 북한군에 대응하고 미래 잠재적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그림 5-1>에서 제시하고 있는 합동특수작전사령부(가칭)⁸³⁾를 창설을 검토해야할 것이다.

[그림 5-1] 합동특수작전사령부(가칭)



81) 국방정보본부 (2011), 전계서, p13.

82) 송철 (2008), 전계논문, p45.

83) 특수전사령부 (2013), 전계서, p26.

제 2 절 지휘 / 부대구조 발전방향

미래 특수작전부대는 다양한 안보위협에 대한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을 위해 독자적 침투수단과 고성능·다기능 무기체계를 활용하여 공세적인 특수작전 능력과 새로운 한·미 연합방위 체제 하에 한측 특전부대 주도로 전구작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육·해·공군이 통합된 합동 부대구조로 편성되어야 할 것이다. 합동 부대구조로의 목표는 크게 3가지로 정립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첫째는 특수작전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보장하는 지휘구조를 확립이다. 이를 위해 육·해·공군의 합동 참모조직과 기능부대로 편성하여 지휘체계를 일원화 해야한다. 둘째는 공세적 특수작전 수행능력을 구비한 부대구조로 발전되어야 한다. 국지전 또는 전면전시 전략적·작전적 수준의 핵심표적에 대한 타격과 지역 확보능력을 갖춘 특수임무부대를 특수작전항공단 편성과 연계하여 구비해야 할 것이다. 셋째는 다양한 위협에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이 가능한 부대구조로의 발전이다. 북한의 서북도서⁸⁴⁾에 대한 기습도발, 주변국의 도서영유권 분쟁과 테러 등 비군사적 위협상황에서 전략적 유연성과 신속한 대응 능력을 갖춘 부대편성과 첨단화된 무기체계와 전천후 기동능력을 갖춘 부대구조로의 발전이 요구된다.

1. 구현방향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지휘통제의 효율성 보장이 가능한 육·해·공군 합동 참모조직으로 편성하며, 현 특수정찰 위주의 부대운용에서 직접타격작전 및 적 후방지역에서 중요지역 통제 및 확보 등 공세적 특수작전 수행이 가능한 부대구조로 발전시키고 미래 다양한 안보위협에 신속한 대응과 완전성을 구비한 신속대응전력을 확보해야 한다.

2. 지휘구조 발전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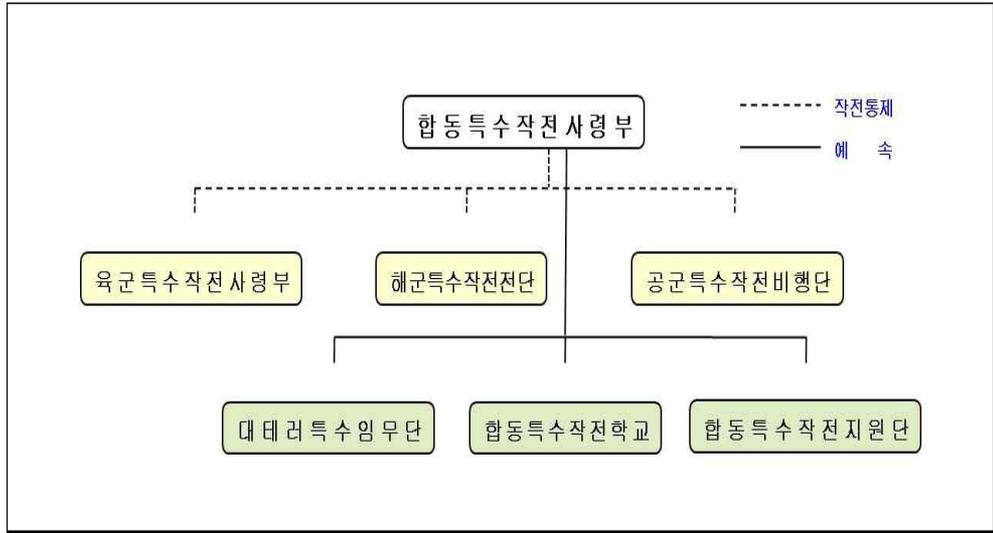
가. 합동특수작전사령부

현존하는 북한의 전통적 위협과 급변사태⁸⁴⁾ 발생 가능성의 증대, 주변국

84) 합동참모본부 (2010a), 전개서, p57.

과의 영토분쟁 등 작전환경 변화에 대비하여 육·해·공군 특수작전 전력을 평시부터 통합하여 지휘체계를 단일화함으로써 전구 차원의 전략적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 가능한 합동특수작전사령부(이하 합특사)로 창설한다.

[그림 5-2] 합동특수작전사령부 편성(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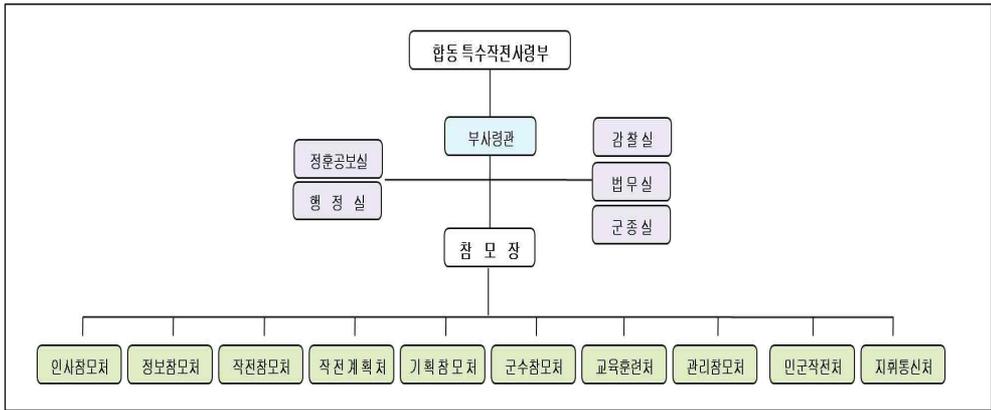
합특사는 평시 육·해·공군 특수작전전력을 합특사령관이 작전통제하되 각 군의 예속부대로 운용한다. 대테러특수임무단과 합동특수작전학교, 합동특수작전지원단은 합특사의 예속부대로 운용한다. 대테러특수임무단은 육·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대테러특공대를 통합하여 다양한 국내외 테러에 대응하고 해외 파견 다국적군 및 유엔 평화유지군 활동 등과 연계하여 임무를 수행한다. 합동특수작전학교는 육·해·공군에서 각 군별로 실시하는 특수자격과정을 통합하여 실시함으로써 합동성 구현을 촉진하고 전문적이고 해당 각 군 특수작전의 특수성에 국한된 분야는 해당 군에서 실시함으로써 전문성은 보장한다. 합동특수작전지원단은 합동특수작전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투 및 전투지원, 작전지속지원 등 작전활동 지원한다.

합특사의 참모부는 예하부대에 대한 원활한 지휘통제를 위해 각 군의 특성과 능력을 고려하여 육·해·공군의 적정 비율로 합동참모부서를 편성한다. 주요

급변사태 : 북한내 사회질서의 악화 또는 정부통제력의 약화로 인해 한국안보에 심대한 위협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예측 불가능한 전쟁이외의 위기사태.

기능은 합동특수작전 구성부대에 대한 지휘통제와 연합·합동 특수작전과 훈련 계획의 수립 및 시행 통제, 3군 합동부대로써 우수인력의 획득과 확보, 3군 통합형 전투발전 소요창출과 전력화 소요제안 등의 기획참모처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림 5-3] 합동특수작전사령부 참모부 편성(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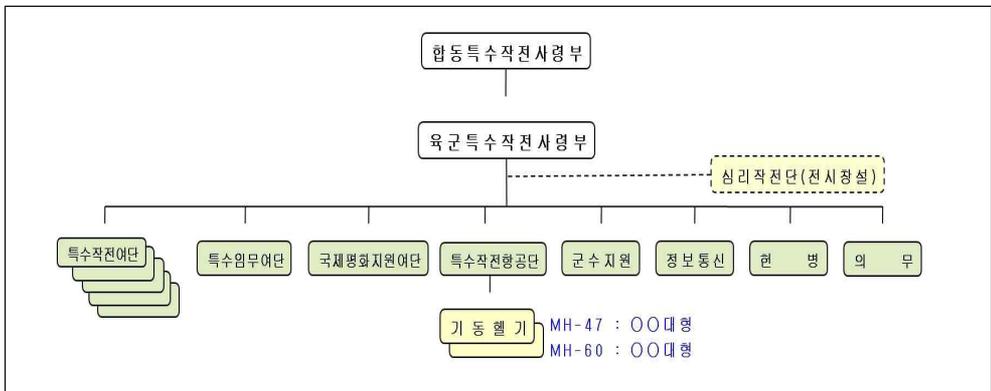


3. 부대구조 발전방향

가. 육군특수작전사령부

육군특수작전사령부는 특수정찰과 타격작전, 비정규전작전 및 국지분쟁에 신속대응 가능한 전문화·특성화여단으로 발전시킨다.

[그림 5-4] 육군특수작전사령부 편성(안)



1) 특수작전여단

분쟁지역과 적 후방중심지역에서의 특수정찰, 타격작전, 비정규전작전 수행과 침투 및 국지도발시 탐색격멸작전, 재해·재난 상황에 대비한 신속대응부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부대구조로 발전시킨다.

2) 특수임무여단

미래 불확실한 전장상황 하에서 현존 및 잠재적 위협과 비군사적 위협 등 다양한 위협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신속대응군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부대구조로 발전시킨다. 이를 위해 북한의 WMD 확산차단과 전쟁지도부에 대한 타격작전 그리고 전략적 요충지에 대한 통제 및 확보를 위한 공중강습작전 능력과 단기간 독립작전 수행이 가능토록 정보·기동·화력으로 증강된 무기체계 편성이 요구된다.

3) 국제평화지원여단

「재스민 혁명」 등 국제정세 변화에 따른 해외파병소요 증가와 대한민국의 국제적 지위 향상에 걸맞는 국제사회의 평화유지활동의 적극적 참여가 요구되는 국제안보 정세를 고려하여 상시 3개 지역에 대한 동시파병이 가능한 부대구조로 발전이 요구된다. 국제평화지원단은 평시 국외 평화작전 수행을 위한 민사작전 능력을 보유하고 전시에는 북한 자유화지역에 대한 안정화작전 수행에 적합한 구조로 발전이 요구된다.

4) 특수작전항공단

전·평시 전천후 공중기동능력을 갖춘 회전익 항공기를 육군특수작전사령부 예하부대로 편성하여 독자적 공중기동 능력을 확보한다. 부대규모는 특수작전 1개대대 규모를 동시 공중기동시킬 수 있도록 중형기동헬기(MH-60급 24대) 대대와 대형기동헬기(MH-47급 24대) 대대, 정비대대로 편성하며, 임무는 평시 재해재난 대비 인원 및 물자수송과 국지전과 전시 특수작전 부대의 은밀 침투수단으로 운용할 수 있다.

5) 심리작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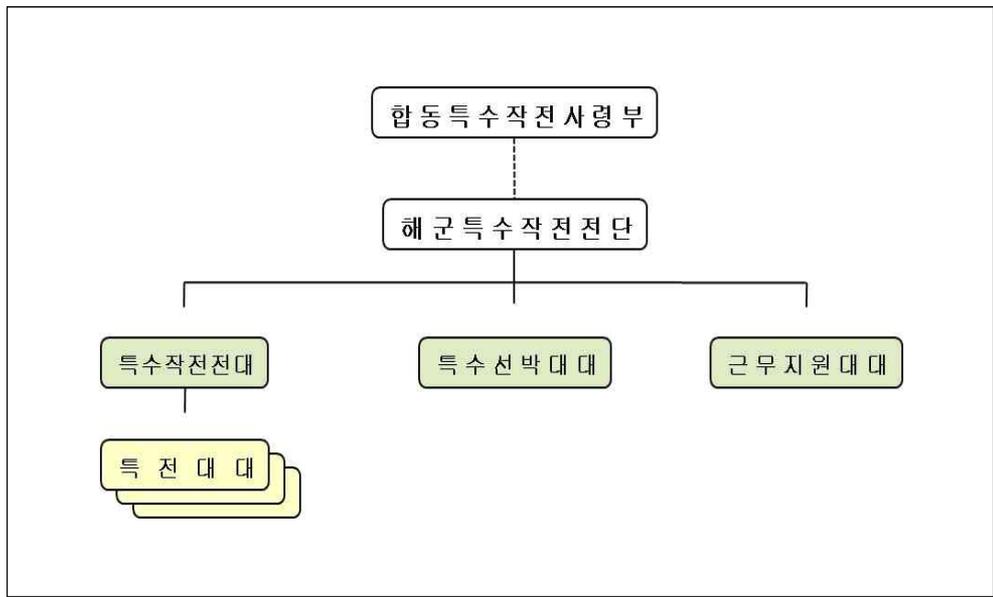
전시 북한 중심지역내 심리작전 수행을 위한 심리부대를 육군특수작전사령부 예하부대로 창설하여 편성한다. 심리작전의 중요성은 아프간전과 이라크전을 통해 입증되었으며, 심리작전을 통한 물리적 파괴를 최소화와 우호적

현지주민에 대한 지지기반의 획득은 미래 한반도 전쟁양상을 고려시 매우 중요한 작전요소로 평가된다. 특수작전부대의 심리작전 수행은 전쟁 조기종결의 전략적 목표달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으며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심리작전 수행능력을 갖춘 부대구조로 변화되어야 한다.

나. 해군특수작전전단

해군특수작전전단은 전시 해군구성군사령부에 대한 지원과 중심지역 특수작전 지휘체계를 단일화하여 합동특수작전사령관의 통합 작전지휘가 가능한 구조로 발전시킨다.

[그림 5-5] 해군특수작전전단 편성(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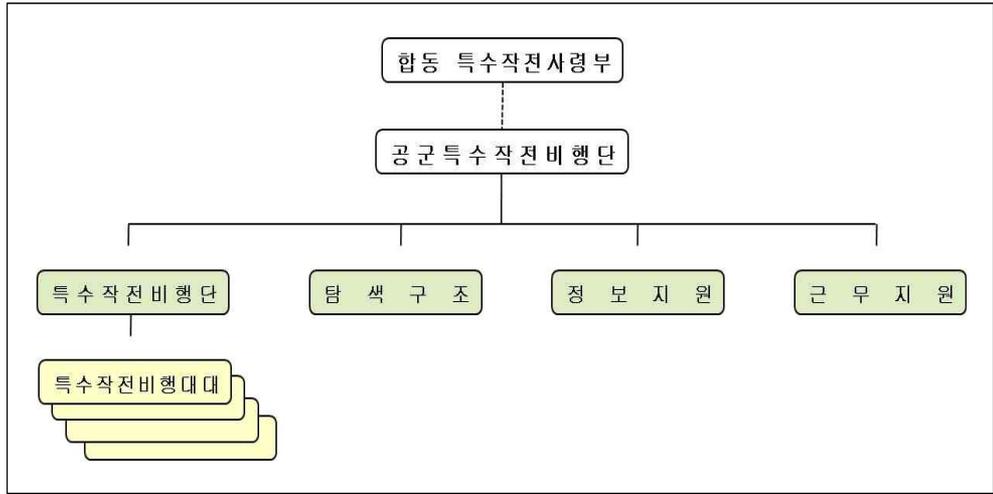


특수작전전대는 전시 해안 근접표적에 대한 특수정찰과 타격작전을 수행하며 동·서해 상륙작전 지역에 대한 지원능력과 더불어 조난자에 대한 탐색 및 구조 능력을 갖추도록 부대구조를 발전시킨다. 특수선박대대는 특수작전전대의 해상침투수단인 특수모함, 반잠수정, 고속단정 등의 운영·관리를 위해 편성하고 근무지원대대는 인사근무와 행정을 담당할 수 있도록 부대구조로 발전시킨다.

다. 공군특수작전비행단

공군특수작전비행단은 특수작전비행대대와 탐색구조부대를 통합하여 창설하고 합동특수작전사령관이 작전지휘 한다.

[그림 5-6] 공군특수작전비행단 편성(안)



1) 특수작전비행단

북한 중심지역과 국내외 분쟁지역에 대한 공중기동지원을 위한 MC-130H/E급 항공기 2개대대와 회전익 항공기 공중재급유를 위한 MC-130P급 1개 대대, 특수작전부대의 근접항공화력 지원을 위한 AC-130급 1개 대대를 편성하여 육해군 특수작전부대의 국내외 전력투사와 항공화력 지원이 가능한 부대구조로 발전시킨다.

2) 탐색구조대대

탐색구조대대는 중형 회전익항공기(MH-60급) 2개 중대와 대형 회전익항공기(MH-47급) 2개 중대로 편성하여 북한 중심지역 또는 분쟁지역내 조난자에 대한 탐색/구조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부대구조를 발전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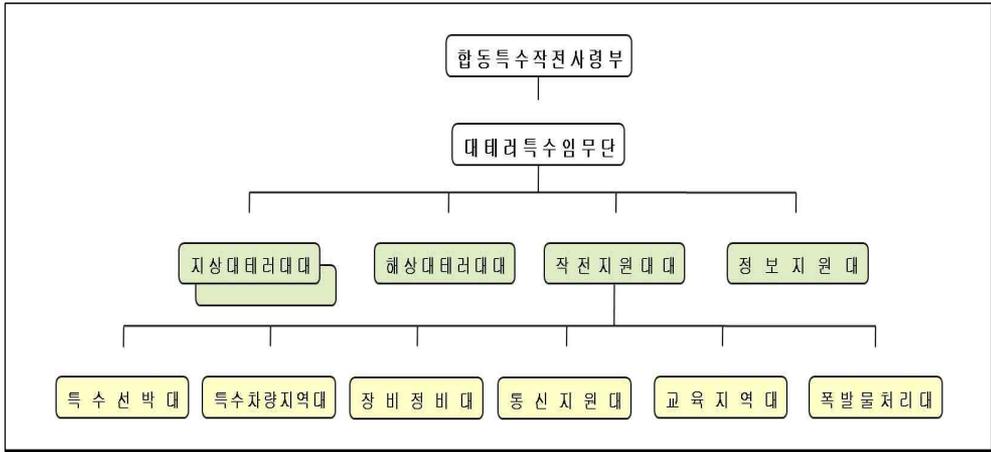
3) 정보지원대대

정보지원대대는 무인정찰기(MQ-1급, MQ-9급)를 운용하여 특수작전 관련 첩보수집과 필요시 핵심(긴급)표적에 대한 직접타격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부대구조를 발전시킨다.

라. 대테러특수임무단

대테러특수임무단은 해군특수작전단 대테러부대와 육군 대테러특수임무대를 통합하여 창설하고, 합동특수작전사령관이 작전지휘 한다.

[그림 5-7] 대테러특수임무단 편성(안)



부대편성은 지상대테러와 해상대테러 전담대대를 구분 편성하고 대테러 작전 지원 기능을 통합한 작전지원대대와 첩보수집 및 지원을 위해 정보지원대를 편성한다.

4. 소결론

합동성은 ‘첨단 과학기술이 동원되는 미래 전쟁의 양상에 따라 총체적인 전투력의 상승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육·해·공군의 전력을 효과적으로 통합·발전시킨 것’으로 합동작전의 기본개념인 ‘효과중심의 동시·통합작전’ 구현을 위해서는 합동작전 환경에 적합한 부대구조로 발전시켜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특수작전부대의 편성 및 구조로는 미래 군사과학기술의 발달과 전쟁수행개념의 변화, 북한 급변사태 등 복합적 안보위협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제한적 요소가 많다. 외국군의 경우 특수작전의 합동성을 위해 미군은 통합특수작전사령부(US SOCCOM)로 통합하였으며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도 합동특수작전사령부로 편성하여 독자적인 작전수행능력을 구비하고 있다. 따라서, 물리적 파괴를 최소화하고 적 중심 정밀타격 등 효과중심의 전

쟁수행에 적합한 전략적 유연성을 갖춘 첨단화된 특수작전부대로 발전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육·해·공군 특수작전부대를 통합하여 합동특수작전부대로 편성함으로써 신속한 의사결정과 효율적인 지휘통제를 통해 다양한 위협에 신속한 대응으로 전·평시 군사전략 목표의 달성이 가능하고, 신 연합방위체계 구축에도 부합된 합동부대구조로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제 3 절 전력구조 발전방향

미래 특수작전부대는 다양한 안보위협에 대한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을 위해 독자적 침투수단의 확보와 특수정찰 감시범위 확대, 군 위성을 활용한 실시간 영상 첩보보고 체계 구축과 공세적 특수작전 수행을 위한 고성능·다기능 무기체계를 보유해야 한다. 독자적 특수작전 수행능력을 위한 첨단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재 각 군별로 실시되는 전력화 사업 체계를 3군 특수작전 부대의 전력화 소요를 합동성에 근간한 통합형 전력화 사업으로 전환하고, 이를 담당하는 부서가 합동참모본부내 신설되어 운용됨으로써 구현될 수 있다. 또한 전력구조 발전의 목표를 제시하여 추진함으로써 현 육·해·공군에서 추진 중인 전력구조 발전 목표와 중복되는 소요는 통합하고 독자적인 사업추진 소요를 식별하여 추진함으로써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보장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미래 특수작전부대의 전력구조 발전을 위한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독자적 원거리 침투수단 확보 둘째, 실시간 정보유통체계 구현 셋째, 정밀 항공화력유도체계 구축 넷째, 공세적 특수작전 수행 전력 확보 다섯째, 특수타격작전 전담부대 무기체계 확보 여섯째, 다기능·고효율 장비 및 물자 확보 등이다.

1. 독자적 원거리 침투수단 확보

첨단항법장비를 갖춘 고정익·회전익 공중침투수단과 기동성, 화력, 첨단화된 방호장비, 원거리 해상침투 능력을 갖춘 해상 침투수단 전력화로 전·평시 국내·외 지역에서 독자적인 특수작전 수행능력을 구비한다. 또한 첨단 공중·해상침투수단 확보와 병행하여 우발침투 수단을 확보함으로써 전·평시 전략적·작

전적 신속대응부대로써 다양한 형태의 특수작전 수행을 보장한다.

2. 실시간 정보유통체계 구현

실시간 특수정찰 - 지휘통제 - 정밀타격을 위한 정보공유 보장을 위해 특전팀과 사령부 간의 정보유통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특전팀으로부터의 첩보보고 내용(표적정보) 및 위치 등이 특전팀 통신장비를 포함한 정보유통체계내에서 자동으로 표시되어야 하며, 특전팀은 통신장비는 이중화를 통해 임무수행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위성 + 공지통신 + FM 통신 등 다양한 기능과 첩보보고 내용(표적정보)은 문자와 고화질 사진, 동영상 등이 전송능력을 갖추도록 첨단화 되어야 한다.

3. 정밀 항공화력유도체계 구축

공지통신 무전기, 적외선표적지시기⁸⁵⁾,레이저 표적지시기⁸⁶⁾를 운용하여 획득된 표적에 대한 실시간 항공화력 유도과 민간인 및 아군에 대한 오폭방지를 위한 표적영상수신기⁸⁷⁾와 적외선조명등, 열상 대공포탄을 병행 운용하여 정밀 항공화력 유도체계를 구축한다.

4. 공세적 특수작전 수행전력 확보

특수작전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노후 무기체계 개선과 고성능 무기체계 발전에 따른 신규 무기체계(원격 무선폭파장치, 차기소총, 경·중기관총, 중장거리 저격소총, 휴대형 로켓발사기, 무인 공격기 등) 병행 획득으로 공세적 특수작전 수행을 보장한다.

85) 적외선 표적지시기(Infra-Red Pointer) : 야간 항공화력유도시 항공화력유도요원이 적외선 지시기의 빔을 방사하여 NVG(야간투시경, Night Vision Goggle)를 착용한 조종사가 빔(illuminator) 또는 점(Spot)을 확인하여 표적 식별을 가능케하는 적외선 지시기.

86) 레이저 표적지시기(Ground Laser Target Designator) 주·야간 레이저 표적지시기로 레이저파를 방사하여 표적에 반사된 레이저파를 포착한 레이저유도폭탄(LGB)이 표적에 정확하게 유도 및 탄착을 가능케 하는 표적지시기.

87) 표적영상수신기 : 항공화력유도 통제시 폭격기 조종사가 보고 있는 표적영상을 지상의 항공화력유도 요원이 실시간대 표적영상을 공유함으로써 정확한 표적타격 능력을 향상시키고 오폭률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장비.

5. 특수타격작전 전담부대 무기체계 확보

전략적·작전적 수준의 핵심표적에 대한 특수타격작전과 중요지역에 대한 통제 및 확보작전 수행을 위해 특수타격작전 전담부대에 대한 무기체계를 확보한다. 신규 무기체계로는 공중강습작전을 위한 기동헬기, 지상표적에 대한 근접 화력지원을 위한 공격헬기, 지상 기동과 화력지원의 향상을 위한 소형 전술차량과 소형 전술차량에 탑재할 경·중기관총 및 81·120mm 박격포 그리고 국지방공능력 구비를 위한 휴대형 지대공미사일 편성과 지뢰살포기, 휴대형 도로대화구 세트, 원격운용탄 등 장애물 운용능력을 구비해야 한다.

6. 다기능·고효율 장비 및 물자 확보

다양한 작전환경 적응과 개인의 방호능력 향상을 위해 나노(NANO) 기술 등 신개념 과학기술을 적용하여 방탄 능력이 극대화된 초경량 방탄복과 방탄헬멧, 자동위장과 화생방 방호, 열감지 방지 기능을 갖춘 피복류, 방·투습, 미끌림 방지 기능이 강화되고 대인지뢰에 대한 제한적 방호가 가능한 전투화 등을 확보하고, 자동위장과 제한된 방탄성능을 보유한 통합형 야전천막 및 개인 기능성 침낭 그리고 경량화된 패치형 전투식량 등을 우선적으로 개발하여 보급해야 한다.

제 6 장 결 론

군사력은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 직접적이며 실질적인 국력의 일부로서 군사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군사적인 능력과 역량을 의미한다. 합동군⁸⁸⁾은 군사력의 주요한 부분으로 그 역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쟁억제를 위한 핵심역을 수행하며, 둘째 전쟁 시 국가를 방위하고 통일여건을 조성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셋째, 국가정책 추진을 군사적으로 지원하며 넷째, 지역의 안정과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군은 그 동안 제한된 국방재원으로 해·공군력은 미군 전력에 상당 부분 의존하면서 지상군 위주의 재래식 전력구조를 유지해 오며 따라 작전운용의 효율성 저하와 합동성 발휘에 제한이 있으며, 한·미 연합사 주도 하에 작전계획이 발전되어 오며 따라 독자적인 한반도 전구 작전계획 수립과 연합·합동 교리의 발전이 지연되고, 현대전 수행에 필수적인 감시전력 및 장거리 타격전력의 확보가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핵을 포함한 대량살상무기 등 북한의 비대칭 전력에 대응할 수 있는 전력과 방안을 강구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하며 미래의 잠재적 위협에 대비한 자주적 방위역량과 다양한 초국가적 및 비군사적 위협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의 확보가 미흡하다.

본 연구문의 연구목적은 2015년 전시 작전통제권이 전환되는 현 시점에서 미래의 전쟁양상 변화와 현존 위협과 잠재적 위협, 그리고 테러 등 비군사적 위협에 능동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현재의 육·해·공군 특수작전 부대를 신속대응군으로서의 임무수행이 가능토록 부대구조를 발전시키는데 있다. 이는 최근 전쟁인 아프간전, 이라크전에서 입증된 특수작전 부대를 현존 위협과 잠재적 위협, 비군사적 위협 그리고 미래 전쟁양상에 부합되는 합동특수작전 부대구조로 발전시키기 위한 연구방향과 방법을 제시 하였다.

문제 해결을 위하여 연구를 통해 도출한 결론은 세계 주요국은 안보환경의 변화와 미래전 양상에 부합하기 위해 합동성이 강화된 특수작전부대를 적극 육성하고 있으며, 한국의 특수작전 부대는 전시 북한의 위협만을 고려해서는

88) 합동군 : 전·평시 합동참모의장의 지휘 또는 작전지휘를 받는 합동작전부대를 총칭.

안된다는 결론의 도출과 각 군별 독자적인 지휘관계에서 탈피하여 평시부터 합동작전을 할 수 있도록 부대구조의 개편과 다양한 위협에 대비할 수 있도록 첨단화된 전력의 보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대한민국의 국력에 걸맞는 국제평화유지활동을 위해 특수작전 부대는 특성화 되고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 인식하에서 현재의 특수작전 부대가 미래전 양상을 고려하고 현존 위협인 북한 위협과 주변국과의 잠재적 위협, 그리고 비군사적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부대구조 측면에서 분석해 본 결과 몇 가지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향후 미래전은 북한의 전통적인 위협 외에 전면전보다는 국가이익을 위해 국경선 분쟁, 도서 영유권 분쟁, 그리고 배타적 경제수역 분쟁 등 국지 분쟁과 테러 등 비군사적 위협이 증가할 것이고,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상 주변 4강(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과 상대적인 군사력과 경제력 비교시 군사 강국이 되기에는 제한됨을 고려 비대칭 전력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현재의 육군의 특수작전 부대는 현 국방개혁 기본계획내 부대구조 발전계획의 누락과 획일적인 예하부대의 편성으로 인하여 그 역할을 완수하기에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둘째, 육해공군의 특수작전 부대는 평상시 각 군별 편성되어 있다가 유사시 지휘관계가 변경되어 합동으로 임무수행하게 되는데 이러한 전·평시 이원화된 지휘구조는 합동성 차원에서 전투준비시간의 부족과 의사소통의 제한 등으로 유사시 원활한 작전수행에 제한이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문에서는 도출된 문제 해결과 특수작전부대가 다양한 전·평시 위협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현재 각 군이 보유한 특수작전 부대를 평시부터 지휘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합동특수작전사령부(가칭)를 창설하는 것이다. 합동특수작전부대의 창설은 미래전을 준비하기 위한 미국, 일본, 중국, 영국, 캐나다 등을 비롯한 세계적인 추세이며, 전·평시 원활한 합동작전을 수행과 한반도의 지정학적 여건 고려시 필요한 부대구조로 판단된다. 그리고 합동특수작전사령부(가칭)의 원활한 임무수행을 위하여 예하부대는 육군 특수작전전사령부, 해군 특수작전전

단, 공군특수작전비행단, 대테러특수임무여단, 합동특수작전학교, 합동특수작전지원단 등으로 편성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1958년에 창설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 육군 특전사는 일률적인 부대 구조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특수작전여단, 특수임무여단, 국제평화지원여단, 심리작전단, 특수작전항공단 등으로 개편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문을 연구함에 있어 전·평시 합동작전의 전 범주에 걸쳐 수행되는 특수작전의 특수성으로 자료의 부족과 세부적인 내용을 다룰 수 없는 제한이 있었다. 향후 추가적으로 연구가 필요한 사항은 합동특수작전사령부의 전력구조 개선과 특전부대 출신의 예비군 자원의 전시 효율적 운용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1. 국내문헌

공군본부(2011), 『2011 외국 군구조 편람』, 공군본부.

국방부(2012), 『2012 국방백서』, 국방부.

국방정보본부(2009), 『2008 중국 국방백서』, 국방부.

_____ (2011), 『국제 및 주변국 동향』, 국방부.

송철(2008), “한국의 특수전 부대구조 발전방향”, 한성대학교, 국방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양욱(2006), 『그림자 전사, 세계의 특수부대』, 플래닛 미디어.

특수전사령부(2013), 『특전부대 비전 2030』, 특수전사령부.

합동참모본부(2012), 『아프간 전쟁 종합분석』, 합참참모본부.

_____ (2000), 『2012 ~ 2026년 합동개념서』, 합참참모본부.

_____ (2010a), 『합동·연합작전 군사용어사전』, 합참참모본부.

_____ (2012), 『미 특수작전(번역본)』, 합참참모본부.

_____ (2012a), 『합동정보작전』, 합참참모본부.

2. 국외문헌

Marquis(1998). *Unconventional Warfare : Rebulding U.S. Special Operations Forces*. Taylor, Francis.

ABSTRACT

Study on the Way to Go for the ROK Military Structures in Response to Current and Potential Threats

– In Focus of ROK Special Operation Forces' Organization
Structure–

Kim, Ki-Duk

Major in Division of National Defence
Management

Dept. of Business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Hansung University

Today, not only do we face DPRK's military threats, but also transnational threats such as international threats and many domestic-foreign threats. Future warfare is expected to change dramatically following Enormous development in technology and information. To affectively respond to and overcome this rapidly changing security situation, the military is undergoing military reform('12~'30) and strategical environment change of 21st century is pushing our military to effectivly and actively respond to persistent threats of DPRK and rapidly

changing security environment while achieving various operation execution capability. In this turning point of the security environment, the role of special operation forces is bigger than ever. Looking from this perspective, this research will deal with development plans for Army·Navy·Air Force special forces that will act as QRF responding to persistent threats and potential threats. This research will be composed of total 6 chapters.

On chapter 1, the introduction, the purpose of the research was discussed. SOF activity in the Afghan war, persistent and potential threats of current security environment, and whether current SOF structure was suitable for responding to non-military threats was discussed. Also the research method and range was discussed as well. As data related to special operations is often confidential, the research shows the opinion of the writer based on limited but public data.

On chapter 2, the inquiry of special operations, which includes the definition of special operations, forms of special operations, and special operation conducting procedure, was reorganized based on public data to show SOF mission characteristics. Also, many accounts of special operations including few recent ones such as the Afghan war were summarized. This showed the importance of SOF before, during, and after war and set the footstone for how to approach the problem of "how should the special forces be employed" when undergoing local dispute by identifying SOF independent operations and Army·Navy·Air Force key operation support.

On chapter 3,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ROK SOF was identified based on data seen from chapter 3. SOF of Army·Navy·Air Force is employed under its respective force during armistice and then is OPCON transferred to Special Warfare Command of the Army. This dually divided armistice and wartime control structure shows problems of lack of battle preparation time in terms of jointness and lack of communication between forces, limiting effective operation execution.

On chapter 4, future warfare and security environment aspect was presented based on ROK '2012 issue of National Defense'. Also, based on examples of recent special operations from chapter 2 and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ROK SOF from chapter 3, capabilities needed for ROK SOF were proposed.

On chapter 5, based on the problems shown from chapter 4, establishment of joint special warfare command and development course of the Army·Navy·Air Force SOF was proposed.

On chapter 6, overall summary and the importance of SOF was highlighted. The development proposal for ROK SOF structure reform is the most effective structure for responding to use of nuclear weapons of DPRK, future potential threats, and non-military threats.

【Key Words】 Military Reform('12~'30), Quick Response Forces, ROK Special Operation Forces, Joint Special Operations Command